금주의 법구–〈법구경〉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3월 17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나눔의 연등 조계사를 밝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 경내에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마음을 담은 연등이 빛을 밝혔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다정한 마음나눔 연등행렬'을 진행했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봉축주간이 시작되는 만큼, 연등행렬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발원하고 우리 사회를 다독이기 위한 취지다. 사진은 대중들이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연등행렬을 진행하는 모습. **글=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戰後 학생불자 인식 담은 문헌 '新발굴'

마산불교학생회 1955년 창간 '雪山' 실물 확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불자 학생들의 신행활동과 불교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불교학생회의 회지가 새롭게 발굴됐다.

이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 이하 정법사)가 창건 109주년을 맞아 사찰 관련 근현대 문헌을 수집·망라하는 자료집 〈문헌 속 마산포교당 정법사〉 발간 작업 과정서 확인됐다. 정법사는 1910년부터 1940년대까지 정법사 관련 문헌을 묶어서 최근 첫 번째 책을 내놨고, 현재는 1950년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법사를 중심으로 1955년 10월 31일 창립된 마산불교학생회의 회지인 〈설산〉(창간호·2호·3호·4호·8호·18호)을 당시 회원으로 활동했던 조병무 동덕여대 명예교수가 정법사에 기증했다. 그간 회지 〈설산〉은 몇몇 기록을 통해서 알려졌으나 실물이 확인돼 전 페이지가 영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가 입수한 〈설산〉 창간호·2호 촬영본을 살펴보면 회지는 모든 글을 수기로 쓰고 등사해서 제작했다. 1955년 12월 10일 발행된 창간호는 총 62페이지로 부처님 말씀부터 회원들의 논단, 산문, 시 등이 실렸다. 회지 서두에는 학생회의 신조로 자각실천(自覺實踐)·파사양정(破邪養正)·구민제세(救民濟世)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불자 청년들은 불교정화운동에 많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순회 강사로 소개된 이수산(李壽山) 거사는 〈설산〉 창간을 축하하는 글에서 자신의 강연으로 인연이 돼 마산불교학생회가 결성되고 소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쁘나, 등사 비용이 없어서 쩔쩔매는 학생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불교의 재원이 대처승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불교정화운동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조병무 명예교수가 지난 2017년 〈불교평론〉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이수산 거사는 강연서 "정화운동과 함께 새로운 철학을 지녀야 하며 이를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5년 창간된 마산불교학생회 회지 〈설산〉의 창간호 표지.

정법사 근대문헌 수집과정서
당시 회원 조병무 교수 기증

정화운동 감명…학생회 조직
회지 '설산' 발간하며 활동해
미신타파·불교계몽 운동 등
전쟁 後 청년 불자 인식 확인

청년들의 글에서는 당시 불교인식도 확인된다. 초대 회장이었던 김태문은 창간호 권두언 '자각만이 우리의 살 길'을 통해 스스로의 깨달음 없이 남을 깨닫게 할 수 없고, 중생을 구제할 수 없으니 자각(自覺)이야말로 나라를 올바르게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회원 전일수는 수록된 '불교와 나(창간호)'에서 현재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걷어내고 지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마산불교학생회 회지 〈설산〉은 한국전쟁 직후 불자 학생과 청년들의 신행활동과 불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 평가된다.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한국전쟁 직후 불교학생회가 조직되고 회지를 발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당시 청년 불자들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관련 근현대 문헌들이 수집·발굴되면 근대문화재 등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은 "창건 109주년을 맞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당시 마산포교당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근현대기 마산불교의 면면을 근현대문헌 발굴과 자료집 발간 사업을 통해 조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 10월 2일 천릿길 입재

송광사서 시작…10월 22일 통도사서 회향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고취와 불교 중흥 원력을 계승하기 위한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가 10월 2일부터 21일간 펼쳐진다.

상월결사(회주 자승, 조계종 前 총무원장)는 4월 19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보사찰 순례 일정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지객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상월결사 대중을 비롯해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는 10월 1일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2일 입재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법보사찰 합천 해인사를 거쳐 10월 22일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에서 회향한다.

천릿길로 이름 붙여진 400여 km의 일정 중에는 지리산 노고단, 시암재, 오도재, 표충사 사자평 등 해발 700m부터 1000m에 달하는 고갯길을 넘는 곳만 9곳이다.

삼보사찰 순례는 강변길을 활용했던 자비순례보다 지리산과 가야산 등 삼보사찰 인근 산길을 넘는 구간이 많다. 천릿길은 순천 송광사를 시작으로 구례 사성암, 화엄사, 천은사 등을 거쳐 지리산 시암재를 넘어 실상사에 당도하는 지리산 구간(1일차~6일차)과, 실상사에서 오도재를 넘어, 함양, 거창, 가조를 지나 해인사에 도착하는 구간(6일차~10일차), 해인사에서 고령을 지나 창녕과 밀양을 거쳐 표충사에 도착하는 구간(10일차~17일차), 표충사 사자평을 넘어 언양을 지나 통도사에 도착하는 구간(17일차~22일차)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진행된 상월결사 자비순례와 마찬가지로 새벽 3시 기상해 묵언 속에서 오후 4시까지 행선이 진행된다. 오전 7시 아침공양과 오전 11시 점심공양은 대부분이 길 위에서 이뤄진다. 숙식을 위한 장소에 도착하면 저녁예불과 회향의식으로 마무리 되며, 오후 5시 저녁 공양 후에는 자율정진이 이어진다.

사찰 순례 성격인 만큼 인근 사찰들과의 유기적인 활동이 다른 순례와 차이점이다. 순례 3일차와 4일차에 화엄사와 천은사를 거친다. 5일차에는 실상사, 9일차에는 해인사, 16일차에는 표충사를 방문한다. 지역 불교계 순례 동참과 함께 순례 과정에서 지역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불교와 우리사회 미래를 위한 고민을 결사 대중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상월결사는 이번 순례가 불교 중흥뿐만 아니라 국난 극복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 같은 의지에 주요사찰서는 상월결사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성지순례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사찰에서 적극

400여 km, 남도 산맥 종주
화엄사·실상사·표충사 등
지역거점 사찰도 참배 예정
불 법 승 귀의와 정진 취지

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송광사 종회의원 일화 스님도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 고려후기 송광사 정혜결사처럼 상월결사가 새로운 정혜결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대중들이 함께 사찰, 그리고 사찰이 아닌 곳에서 결사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월결사는 전국 불자들과 비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 불교를 중흥하는 불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삼보사찰 순례 네이밍을 5월 21일까지 공모하며, 공모 당선자에게는 삼보사찰 순례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공모 신청은 봉은사 홈페이지 팝업공고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사찰 상월 걷기순례도 4월 해인사 본말사 걷기순례에 이어 5월 11일 봉선사 걷기순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동국대, 첨단 IT기술로 'K-명상' 초석 놓다

4월 23~25일 온라인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3D홈피 구축해 플랫폼활용
강연 · 상담 · 공연 등 진행
온라인 명상컨퍼런스 진행
계층 · 직군별 명상법 제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개최하는 제2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3D홈페이지 화면. 3D로 구현된 체험관에는 전통, 응용 명상 등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언택트 문화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국제명상페스티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렸다.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명상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제2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최했다. 특히, 새롭게 개발된 3D 홈페이지와 명상AR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유튜브와 줌을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명상 강연 · 지도상담과 콘텐츠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4월 23일 정식 오픈한 대회 홈페이지(mind.dongguk.edu)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명상,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홈페이지는 박람회 체험장처럼 3D로 구현돼 실제 현장을 찾은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페스티벌은 크게 학술, 체험, 문화, 아카이빙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제 컨퍼런스가 중심이 된 학술행사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동국대 중강당에서 줌 라이브로 진행됐다. 국제 컨퍼런스에는 명상을 비롯해 과학, 심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실용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4월 23일 '명상과 뇌과학'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바바라 프레드릭슨(Barbara Fredrickson)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와 앤드류 올렌즈키(Andrew Olendzki) 교수 레슬리대 교수, 최정미 인체 항노화 표준연구원장과 이병철 한림의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명상과 심리치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4일에는 로널드 D. 시걸(Ronald D. Siegel) 하버드 의대 교수와 마크 엡스테인(Mark Epstein) 정신과 의사, 원승희 경북의대 교수, 이강욱 강원의대 교수, 김경승 명상의학회 회장, 채정호 카톨릭의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마지막 날인 4월 25일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서광 스님과 카렌 블러스(Karen Bluth) 노스캐롤라이나의대 교수, 말콤 D. 에켈(Malcolm D. Eckel) 보스톤대 교수가 '명상과 웰빙'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통 명상부터 다양한 응용 명상에 대한 강연과 코칭 등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했던 점도 이번 페스티벌의 특징이었다. 홈페이지에 마련된 체험관에는 전통명상존 · 응용명상존 · 행복배달전통명상의 체험이 가능했다.

전통명상존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간화선 강연과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파토스 교수와 수불 스님의 '간화선과 물리학의 만남'이 제작돼 참여자들을 만났다. 우 소다나 사야도의 위빠사나 강의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서광 스님의 자비명상 강의도 눈길을 끌었으며, 모든 체험 강연은 영문으로 병기돼 해외 유저들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응용명상존에는 일상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산책명상 △캠핑명상 △지하철명상 △음악명상 △커피명상 △감사명상 △대화명상 △한줄명상 △필라테스명상 △관상기도명상 등 총 10편이 소개된다. 이들 콘텐츠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쉽게 제작됐으며, 7권의 명상 가이드 소책자로도 만들어져 서울 지역에 무료로 배포된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행복배달명상'도 주목할 콘텐츠였다. 명상의 나눔을 목표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각 대상군에 맞춰 개발한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인 '행복배달명상'은 △초롱초롱 유아명상 △똘망똘망 어린이명상 △엉뚱발랄 청소년명상 △걱정마요 대학생명상 △알콩달콩 커플명상 △어깨펴요 직장인명상 △힘내세요 의료인명상 △함께해요 다문화명상 △경찰명상 △시니어명상으로 구성됐다. 이들 프로그램도 영상 콘텐츠와 함께 10권의 안내서로 제작돼 무료 배포된다.

명상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빙 센터인 '명상 도서관'이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구축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대학이 학문적 기반과 특성을 살려 '명상 아카이브(명상 도서관)'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상도서관'은 명상 관련 논문 저서 및 이론과 수행법, 국제 컨퍼런스와 워크숍, 학회 사이트, 세계명상 센터와 연구소 등의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행사 이후에도 명상 아카이빙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

취임일성 '현장 포교' 강조
모바일 신도네트워크 제시

조계종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조계종 최초로 언택트 취임식으로 새로운 시대 포교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취임식은 사상 최초로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모바일 초청장을 받은 100여 사찰, 신도 · 포교단체 대표들은 줌을 통해 포교현장에서 취임식장과 연결됐고, 유튜브 생중계에서 많은 불자들이 실시간으로 취임을 지켜봤다.

종단에서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회의장 정문, 교육원장 진우 스님만이 현장에 참석했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도 줌으로 참석했다. 이날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포교 종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현장 포교가 살아나야 종단의 생명력이 살아난다. 위에서 아래로 제시하는 일방향의 정책은 지양하며 교구본사와 사찰, 각종 포교단체, 신도단체와 함께 소통하며 다듬어 가겠다"고 종책 수립 방향을 밝혔다.

범해 스님은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포교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 전문가 분석을 통해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은 포교종책을 발표할 것임을 제시했다.

스님은 취임사에서 그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전법활동을 강조했다. 스님은 "생동하는 전법활동을 만들어 가겠다. 현장포교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사찰과 교구본사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포교사를 비롯한 포교 · 신도단체가 결합해 활동하는 지역 포교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8대 집행부 임기 동안 포교 · 신도단체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흐르는 물처럼 포교 성과를 이어가겠다. 불교성전과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불자 생활의례를 바탕으로 종단의 수행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며 제7대 포교원 집행부의 성과를 계승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호법원장에 혜일 스님 선출

중앙종회, 4월21일 142회 정기회
인사안 · 2021년 예산안 등 의결
편백운 사태는 법적으로도 종식

태고종 중앙종회가 신임호법원장에 제주 정방사 혜일 스님(원융포럼 대표)을 선출했다. 또 올해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 35억 6687만원을 추후승인하고 포교원장 등 종단 소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4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종단 주요 안건들을 저리했다.

의원 56명 중 55명 참석으로 성원됐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회가 연기된 만큼, 2020년 결산안과 감사보고를 비롯해 누적된 종법 개정안도 대거 상정돼 주목됐다.

임기만료를 앞둔 호법원장 지현 스님의 후임에는 혜일 스님이 선출됐다. 호법원장 선출은 지현 스님과 혜일 스님이 후보로 추천됐으며, 동표로 인한 재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30명의 동의를 받아 혜일 스님이 최종 당선됐다.

이어 중앙종회는 인사안으로 상정된 포교원장 지상 스님과 총무원 규정부장 진화 스님, 초심위원 고담 스님, 법규위원 진성, 도안, 대활, 법인, 지만, 성천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준했다. 또 사찰법 · 중앙종회법 · 분담금 징수법 · 징계법 개정예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방종무원장 선거법 제정예고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사찰법 개정안은 종단 사찰의 종류를 공찰과 전통사찰, 사설사암으로 구분하고 공찰은 다시 소유권에 따라 종유사찰과 공유사찰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찰지정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명확한 관리운영으로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분담금 징수법 개정안은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가산금 등 조항을 신설해 종도로서 의무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될 경우 종단 소속감 고취 및 재정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이번 종회에서는 입법기관으로서 중앙종회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종법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와 법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의될 예정"이라며 "또 사찰법과 지방종무원장선거법 제정예고안 등이 제안된 만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혜안과 애종심으로 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성안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여러 주요 안건을 다룰 종회인 만큼, 의원 스님들의 높은 식견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종단 미래가 더욱 새로워지고 향상일로의 길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부종수교의 원력으로 종론이 통일되고 종도가 하나되어 종단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 승가 발전 선봉장 되어달라"

1, 3,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포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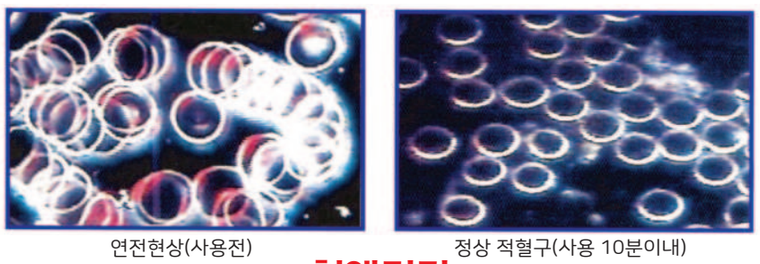
최근 실시된 조계종 각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에 대한 포상식이 열렸다.〈사진〉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 3, 4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들을 포상했다.

1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로는 비구 법원 스님과 비구니 원영 스님이, 3급 수석합격자로는 비구 청라 스님과 비구니 법과 스님이, 4급 수석으로는 비구 현사 스님과 비구니 운정 스님이 선정됐다. 특히 원영 스님은 2, 3급 승가고시 수석에 이어 1급에서도 수석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수석합격자들에게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만년필을 수여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출가자와 신도가 줄고 있는 등 한국불교가 난관에 봉착한 시점에서 승가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을 차지한 스님들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불교 포교의 선봉장으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절실하다

수진사 방화범 망발 '충격'
장애인차별 · 편견도 여전
故 변희수 하사 49재서도
"차별 없는 세상" 발원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해 남양주 수진사 산신각에 불을 질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수진사 방화범' 장모씨가 법정에서 "방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불 지르라면 또 불을 지르겠다"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자 했지만 안됐다"는 등 왜곡된 신앙심을 쏟아내 재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자 당당한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故변희수 하사가 사회적 편견 속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지 49일이 지났고, 장애인의 날 41주년을 맞아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장애인을 향한 여전한 차별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모든 혐오와 상처, 논란의 공통적인 요인이 사회적 차별라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확산되고 있다.

사노위, 故 변희수 하사 49재

성소수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자 당당한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故변희수 하사가 사회적 편견 속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지 49일이 지났다, 변 하사의 죽음은 편견과 혐오에 사로잡힌 우리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재차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가 4월 17일 서을 법련사(주지 진경)에서 봉행한 故변희수 하사의 49재 법회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차별 없는 사회를 발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이날 49재에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위원 스님들과 고인의 부모님, 지인, 생전 고인의 뜻을 지지했던 이들이 함께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념사에서 "변 하사는 오늘 49재로서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미타불의 세계로 떠나게 됐다"며 "아미타부처님 세상은 커밍아웃도,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다음 생애는 오롯이 변희수라는 한 존재로서 못다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단에 놓인 위패에는 남녀 성별을 표기하지 않았다. 단지 흰 한지에 변희수 영가라는 이름만 새겨졌다. 성소수자를 보는 관념이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헌화도 흰 국화가 아닌, 군을 사랑했던 고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녹색 리시안셔스로 올려졌다.



조계종 사노위의 故 변희수 하사 49재.


보리수아래가 진행한 장애인의 날 좌담회.



방화사건 이후 임시로 설치된 수진사 산신각.

사노위는 "성 정체성은 바꾸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기호와 선택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애통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재차 추모했다. 이어 "혐오와 편견의 고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라며 "고인의 복직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보리수아래, 장애인의날 좌담회

불교와 문화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좌담회를 열였다. 불교와 사회에 전하는 진솔한 목소리들은 장애인들이 그 어떤 편견 없이 우리사회 동등한 일원으로 함께하길 바라는 염원이었다. 줌(zoom)을 통해 언택트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회원들은 '장애인' 이라는 단어 속에 내재된 차별의 의미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현승 씨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자체로 보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님에도 여전히 편견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느껴진다"며 "장애인의 사전적 의미는 걸리적거리는 사람이다.차라리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사용한다면 장애보다 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씨도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의미를 담아 이분법적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래도 과거에 비해 장애인을 향한 편견의 시선이 다소 나아졌으니 좀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회원들은 당사자보다 되레 주위에서 장애를 더 크게 의식하는 분위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최 대표는 "사실 장애는 나에겐 일상이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않지만 주위에서 오히려 더 의식한다는 생각도 있다"며 "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대해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애 씨는 "확실히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지만 장애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며 "누군가에겐 자연스러운 환경이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환경일 수 있음을 서로 알고, 우리사회가 모두에게 편안한 환경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리수아래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좌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좌담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보리수아래' 에서 시청가능하다.

수진사 방화, 전형적인 증오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14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방화범 장씨와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배심원단을 향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특히 검찰 심문 과정에서 장씨는 산신각에 불을 지른 행위는 물론, 이에 앞서 수진사 종각의 현수막에 불을 붙인 행위까지 모두 인정했으며, 법정에서 담당 검사가 방화 이유를 묻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한발 더 나아가 "나의 사명이다. (불탄 전각과 함께) 순교하길 바랐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내겠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도 쏟아냈다.

이는 수진사 방화사건이 왜곡된 신앙심에서 비롯됐음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해 마니아 CEO, '만해 아카이브' 기금 10억 쾌척

이근창 대표, 4월 19일 동국대서 전달식

만해연구소 5년간 사업 추진해
만해 스님 삶 · 사상 입체 조명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불교운동가 등 한국근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망라하는 아카이브가 구축된다. 5년 동안 진행되는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젊은 시절부터 만해 스님에 매료됐던 한 기업가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주) 대표의 10억 원을 후원해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 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근창 대표는 4월 19일 동국대 본관 4층 총장 접견실을 찾아 기금을 전달하고 '만해 아카이브 구축사업' 운영에 대해 협약했다. 행사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윤재웅 만해연구소장, 서윤길 불교학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 대표가 기부한 10억 원을 통해 동국대는 향후 5년간 '만해 아카이브' 를 구축한다. 사업은 동국대 만해연구소에서 맡기로 했다.

만해연구소는 만해 스님과 관련된 △자료조사 · 수집 및 정리 △만해 한용운 전집(용운당전서) 간행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만해 관련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대중에게 알려진 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스님, 독립운동가 등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대표가 4월 19일 만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 기금 10억 원을 윤성이 동국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만해 스님의 다양한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독실한 불자인 이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만해 스님을 흠모해 1974년부터 매년 3월 1일 서울 망우리에 있는 스님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만해정신 선양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9년에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해 한용운:고난의 칼날에 서라〉를 펴냈으며, 2020년 8월에는 만해한용운연구소를 통해 '제1회 만해 한용운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만해 스님에 푹 빠져있었다. 그러던 중 만해 스님과 관련된 간행물이 원전(原典)과 다른 경우를 종종 접하고 '언젠가 만해스님에 관한 제대로 된 아카이브를 만들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해라는 큰 스승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만해를 오롯이 전달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자 뜻깊은 회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원력을 동국대와의 인연을 통해 실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고교 시절 은사였던 서윤길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와의 인연으로 동국대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19년 동국대는 기업의 이익을 소외된 약자들에게 환원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로 이근창 대표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명사 추천 절차 비구니회 거쳐야"

4월20일 원로회의서 재결의
신임 원로의장에 수현 스님



비구니 원로 스님들이 조계종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 특별전형 추천과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따라 명사법계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자의적이고 산발적인 명사 추천을 통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조계종 종법에 따라 교구본사를 거치되 비구니계 관습에 따라 일원화된 창구로 공의를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는 4월 2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제7차 원로회의를 열고 명사 법계 추천 원칙을 재차 결의했다.〈사진〉 이날 회의는 신임의장단 선출과 명사 추천 원칙 결의의 건을 주요안건으로 진행됐으며 25명 원로의원 가운데 10명 참석, 15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원로회는 특히 명사 추천 원칙과 관련, 지난 2020년 7월 채택했던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입장' 을 재결의한데 이어, 앞으로 모든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은 전국비구니회 명사법계추천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날 원로회는 5월 2일 의장단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신임 의장단도 새롭게 구성했다. 원로의장 명성 스님의 후임으로 신임 원로의장에 수현 스님이 추대됐으며, 수석 부의장에는 일법 스님이, 운달 스님과 묘순 스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

희망·치유 연등행렬, 온라인서 펼쳐진다

보존위, 4월 21일 연등회 일정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연등행렬이 올해에는 도심 대신 온라인에서 펼쳐진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도 도심을 오색 연등으로 수놓는 대규모 연등행렬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로 연등회가 꾸며질 예정이다.

연등회의 시작은 오는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으로 알린다. 올해 봉축탑은 익산 미륵사지석탑으로 조성됐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불을 밝힌다.

연등회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기념법회는 5월 15일 오후 6시 조계사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연등 행렬, 사찰서 별도 진행
연등법회·등재기념식 'zoom'
온라인 통한 연등 행렬 구현
문화·공연마당 등 유튜브로

연등법회에는 연등회를 함께 준비해 온 참가단체, 해외사찰 등을 줌으로 연결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함께 밝힌다. 축제 분위기를 더했던 어울림마당의 연등회 노래와 연희단의 율동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각자 자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대신한다.

불기2565(2021)년 연등회 주요행사 일정(안)

행사명		일 정	비 고
봉축 점등식		4월 28일(수) 오후 7시 (전시:4월 28일(수) ~ 5월 30일(일))	서울광장(예정)
가로연등		4월 28일(수) ~ 5월 30일(일)	
전통등전시회		5월 14일(금) ~ 5월 30일(일)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등
전통등전시회	청계천 전통등전시회	5월 7일(금) ~ 5월 21일(금)	장소 미정
전통등전시회	등간 전시	5월 8일(토) ~ 5월 30일(일)	조계사 앞
전통등전시회	우정공원 전시회	5월 11일(화) ~ 5월 30일(일)	
전통등전시회	봉은사 전통등전시회	4월말 ~ 5월 23일(일)	예정
연등법회 및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5월 15일(토) 오후 6시	조계사 / 유튜브 중계
연등행렬		5월 15일(토) 오후 7시 40분	조계사 주변 / 유튜브 중계
연등놀이(참가단체 행렬)		5월 15일(토) / 16일(일) / 19일(수)	각 사찰 및 단체
유튜브로 만나는 전통문화마당		5월 16일(일) ~ 5월 19일(수)	유튜브 업로드
봉축법요식		5월 19일(수) 오전 10시	조계사 및 전국 사찰
유네스코 등재 기념 연등회 특별 전시회		4월 14일(수) ~ 7월 23일(금) * 관람시간 : 매일 10:00~17:00 * 월요일 휴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온라인 연등행렬		www.llf.or.kr/2021lanternparade	

※상기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에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하며,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은 연등회 참가단체 및 사찰별로 특성과 상황에 맞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이뤄진다. '등(燈)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퍼포먼스', '각자의 자리에서 등 달기', '연등 나눔 행사', '희망과 치유를 기원하는 탑돌이' 등을 5월 15일, 16일, 19일에 진행된다.

연등행렬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4월 23일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2021lanternparade)에 정식 오픈하는 온라인 연등행렬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용자가 참가단체를 선택하고 이름, 소원을 작성하면 전통등을 들고 행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등행렬 다음날 서울 종로 우정국로 일대서 열렸던 전통문화마당·공연마당은 영상 콘텐츠로 사전 제작해 5월 16일 공개된다. △한국불교 소개 △DIY 전통무드등 만들기 △전통 금니 사불체험 △작은 팔모등 만들기 △연꽃컵등 만들기 △선무도 체험 △연꽃드림캐쳐 만들기 △리사이클링 아트 등을 집에서 유튜브 연등회 채널을 통해 체험해보고 즐길 수 있다.

서울 도심을 수놓았던 형형색색의 연꽃등, 단체 행렬등, 장엄등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전통등 전시를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청계천 전통등전시회는 5월 7일~21일, 조계사 앞 등간 및 행렬등 전시는 5월 8일~30일, 종로 및 우정국로 등(燈)의 거리 전시는 4월 28~5월 30일, 봉은사 전통등전시회는 4월 말부터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종로 버스정류장 가로등에 연꽃 모양의 조형등을 설치하고 가로연등 일부 구간도 전통등을 배치해 한지등(燈)의 멋스러움을 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인에게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글로벌 서포터즈는 올해에도 구성됐다. 20개국 출신 주한 외국인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8일 온라인을 통해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연등회의 역사 및 가치 교육, 등 만들기, 율동 영상 번역 등을 서포터즈 개인 SNS를 통해 연등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젠 사찰도 생태거점으로 변모"

한마음선원 EM지구사랑
19일 승단 환경교육 실시

4월 18~19일 스님 대상
환경인식 개선교육 진행
5월2~3일 2차 승단교육



EM지구사랑작은실천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진행한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에 참가한 스님들이 환경인식개선 강연을 듣고 있다.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 정서 교감의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생태맹'이라고 합니다. 사찰은 인간과 자연의 연기적 관계를 인식하는 불교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생태사찰이 되어야 합니다."

4월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는 70여 스님들이 모였다. 이시대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전하는 강사들의 말에, 안양본원 3층 강당과 4층 강당에 나눠 자리한 스님들은 높은 관심을 표했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대표 혜솔, 이하 EM지구사랑)이 4월 18일 입재해 19일까지 개최한 종교인 환경교육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스님들이 대거 모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가 더해진 이날 교육에 해외지원 스님들도 동참했다.

EM지구사랑의 환경교육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는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5대 종교 종교인 환경교육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12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첫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18일 최서윤 생태시민교육연구소 공명 대표의 '기후변화 실태와 우리의 나아갈 길', 19일 심선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원순환과 미세플라스틱', 최미희 강사의 '생태사찰과 한마음선원' 등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지구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많은 부분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님들이 모인 이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5월 2일 오후 2시 3강 '지구를 살리는 녹색기초생활습관교육2'와 5월 3일 오전 8시 '녹색사찰 가꾸기' 강연으로 이어진다. 신도들을 위한 환경교육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한마음선원 유튜브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

안양 한마음선원=노덕현 기자

12개 사찰 '평화통일도량'으로 거듭

민추본, 4월22일 협약식 개최
"평화도량 108곳까지 확대해"

조계종 사찰 12곳이 평화통일도량으로 거듭났다. 사찰들은 향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후원사찰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에 뜻을 모을 것을 발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는 4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호~13호 후원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1호 후원사찰 인천 능인사에 이어 협약을 체결한 사찰은 안양 염불사(주지 향림), 경기도 광주 장경사(주지 진광),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고양 흥국사(주지 원용), 성주 심원사(주지 응관), 광주 원효사(주지 해청), 성남 원적정사(주지 도봉), 당진 영탑사(주지 상준), 원주 구룡사(주지 해공), 안성 석남사(주지 덕운), 용인 원각사(주지 주혜), 서울 옥천암(주지 원묵) 등 12곳이다.

민추본은 이날 협약에 참여한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평화통일도량' 현판을 전달했다. 또 스님들은 후원협약서에 서명하며 "민추본과 함께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만드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발원했다.

월우 스님은 "평화통일도량 협약사업은 민추본의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협약을 맺은 평화통일도량들은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으로 민족 화해와 통일정토 구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현판 전달 및 후원협약에 이어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은 후원사찰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흥원, 봉축지원금 3000만 원 전달

4월19일 봉축위에…코로나19 지혜로운 극복 당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기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19일,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며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국가 차원에서는 지혜로운 대처가, 개인 차원에서는 자비의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동체대비(同體大悲) 마음으로 불교가 우리 사회에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봉축 메시지를 전했다.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건전한 공동체의 복원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적인 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연등회 등 봉축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봉축위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봉축 관련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로 희망 전한 글로벌 '연꽃 세상'

〈Global〉

15년 백서 발간한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세계 곳곳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묵묵한 발걸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전해온 로터스월드가 지난 15년의 활동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함께한 기억을 담다'에는 2004년 국제NGO로 첫발을 내딛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발자취가 사진과 도표, 각종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불교계 NGO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NGO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번 백서 발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이다.

백서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정진하겠다는 로터스월드의 초심을 상징한다. 동시에 지난 세월 로터스월드와 함께해 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도 고스란히 담아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미얀마와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궈낸 다양한 성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NGO가 나아갈 방향성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로터스월드가 걸어온 걸음마다 희망의 싹이 움텄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이어진 자비행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교육환경 개선은 로터스월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학교 학생들.

로터스월드는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같은 해 캄보디아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1만 2000여 평의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005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착공했다. 2002년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공식선언한 지 불과 3년만의 결실이었다.

2006년 완공된 아동센터는 로터스월드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그 정체성을 상징한다. 차별 없는 교육을 통한 보육·복지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 빈곤아동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아동보육사업은 점차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지역 식수개발, 교육환경개선, 직업훈련 교육,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아동결연 사업, 집짓기 캠페인을 통한 주거개선까지 확대됐다. 다양해진 사업만큼 캄보디아 곳곳에 연꽃과도 같은 희망이 움텄다.

2009년에는 아동센터 부지에 BWC화엄다목적센터가 설립됐다. 로터스월드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한국 초청사업을 통해 열악한 현지 의료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생명살림에 나섰으며, 김안과병원과 협약을 통해 백내장 무료수술 및 의안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초등학교 화장실 및 위생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아동센터 입소 아동을 넘어 인근 지역 아동들의 보육·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새롭게 건립하고 교실에 교재와 책걸상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끌었다.

2011년 문을 연 로터스희망미용센터는 캄보디아 청장년 세대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기술교육을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에는 미용학교 최초로 캄보디아 교육부 인증을 받았고 같은해 '사회적기업' 형태의 미용실을 개원하는 성과를 일궜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구촌을 일구기 위한 로터스월드의 꾸준한 노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토대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발성 혹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속 개개인이 처한 환경을 토대로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로터스월드는 점차 미얀마와 라오스까지 활동범위를 확장했다. 2010년 미얀마 지부를 설립하고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청년 자립, 식수환경 개선,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의 여러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기업 '두부공장' 운영이다.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 연계 및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두부콩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8년 설립한 두부공장은 날로 성장을 거듭해 미얀마 양곤 내 마트체인과 한식당 등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0년 이전불사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는 등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3년 설립된 라오스지부는 열악한 교육시스템 개선, 지역활동가와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마을청소년센터와 청년활동가워크숍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 라오어 교수법·문화예술 및 학생관리 교육 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은 인식개선 성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도농간 빈부격차가 크고 외부자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현지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지키는 동시에, 변화흐름에 발맞춰 마을에 적합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로터스월드의 이같은 사업들은 △교육의 평등한 권리 △지구촌 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자립가능한 개발 등 4가지 주요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서원이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미얀마와 라오스까지 이어진 다양한 사업성과 및 노하우를 토대로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갈 것"이라며 "후원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촌의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많은 인연으로 이어진 가피에 감사"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로터스월드가 걸어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가피로 느껴집니다. 로터스월드를 믿고 신뢰해 주신 여러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사진〉은 백서 발간의 이유를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로터스월드의 현재는 지난 세월 함께해 준 후원자와 관계자, 임직원들 덕분이며, 언제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준 불교계가 있었기에 지난 세월 흔들림 없이 초심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성관 스님은 "세상사는 여러 가지 인연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진다"며 "열정 넘치고 긍정적인 임직원들과 로터스월드를 신뢰해 주신 많은 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로터스월드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 발간이 로터스월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도 매순간 변화하는 만큼, 지난 발자취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성관 스님은 "2004년 낯선 캄보디아에서 인연을 맺었던 빈곤아동들이 이제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인재로 성장했다. 이는 차별 없는 교육이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결국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격과 형태가 점차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한 원칙과 지향점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15년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교육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하는 해법이라는 것.

스님은 "연꽃을 피우기 위해 건강한 뿌리가 필요하듯 사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로터스월드가 지난 15여 년 동안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에서 기초교육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매진해 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빈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동교육은 물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로터스월드는 컴퓨터와 자동차공학, 제빵제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스님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늘 변수와 어려움의 연속"이라며 "현지 및 파견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 후원자 분들의 변함없는 믿음, 이를 기반으로 현지와 공고하게 구축돼 온 신뢰관계가 있기에 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신뢰를 전했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부처님오신날 수원 보현선원에서 백서 봉정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 극복, 통도사·쌍계사 보살계 눈길

4월 16~18일, 보살계 수계산림 원만 회향

야외 법석 및 거리 띄우기
비대면 온라인 법회 진행
청정계율 및 보살도 강조
인재불사위한 장학금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연비의식을 진행 중인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모습.


비대면으로 4월 16~18일 3일간 진행된 쌍계사 보살계 수계산림 모습.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보살도를 서원하고 계를 받는 보살계 수계산림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불기 2565년 보살계 수계산림' 을 봉행했다.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식에서 주지 현문 스님은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다.

현문 스님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보살계 수계산림을 취소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올해는 철저한 방역과 준비로 보살계 수계산림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불자들의 협조 속에 법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통도사는 16일 오전에만 법회를 봉행하고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거리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며 행사를 마쳤다.

아울러 연비를 받는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설법전 앞마당에 의자를 두고 야외서 수계 연비를 받도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만전을 기했다.

통도사는 연비 및 계첩 수여에 앞서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전달과 함께 매년 수계산림에 동참하는 불자들을 격려하는 성만패 및 메달 수여식을 진행했다.

영축총림 장학금은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12명, 학사 12명, 승가대학원 및 율원 학림 19명, 승가대학 4명 등 총 50명의 스님에게 총 4300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은 영축율학승가대학원 금린 스님과 통도사 승가대학 혜공 스님이 대표해 받았다.

아울러 수계차수 10회, 15회, 20회, 30회에 해당하는 불자들에게 성만패 또는 메달이 전달됐다. 이번해 수계산림에서는 30회 3명, 25회 2명, 20회 11명, 15회 22명, 10회 29명 등 총 66명의 불자들이 성만패와 금색가사, 메달 등을 받았다. 30회 동참자는 박선숙(선심행), 문선희(연화성), 장금수(안심행) 불자다.

이와 함께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도 보살계 수계산림을 비대면으로 봉행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내 팔영루와 금당에서 열린 '불기 2565년 신축년 보살계 수계산림' 은 산중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봉행됐다.

쌍계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괘불이운, 영산재, 정대불사도 올해는 취소했다.

전계대화상 덕민 스님은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수계제자들이 계를 받아 보살도를 실천하고 계를 지키며 자비 실천으로 공덕을 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영담 스님은 온라인으로 참석한 재가불자들에게 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지 영담 스님은 "코로나 19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역으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게 됐다"며 "비대면으로 진행해 불자들을 만날 수 없고 정대불사 등 중요행사를 취소했다. 코로나 19가 어서 소멸되고 여법한 법회를 봉행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련, "환경 위한 나비대원 되세요"

저탄소 생활 및 쓰레기 제로 실천 프로젝트

탄소저감 생활 실천 강조
환경일기장 공모 등 진행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이 저탄소 생활과 쓰레기 제로 실천 프로젝트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 를 진행하고 참가할 대원을 모집한다.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나는 지구의 비상구)' 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공모사업 '2021년도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 에 선정된 프로젝트다. 저탄소 생활과 쓰레기를 없애는 삶을 실천하며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나비는 '나비효과' 에서 따온 이름으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이다.

'나비의 그린라이프스토리' 에 참가할 나비대원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살피고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 라는 환경일기장을 작성하며 구체적인 환경운동방법을 배운다.

동련은 매달 '나비효과를 부르는 실천과제' 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실천과제는 △세계생물종다양성보존의 날 플로깅 및 분리수거 △환경의 날 주제에 맞는 피켓 만들기 △초복, 중복 '세계 인구의 날, 고기 없는 날' 소소한 밥상 시상 △에너지의 날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자원순환의 날 환경메이커활동 등이다.

동련은 나비대원 신청자에게 대상별 환경일기장을 보낼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추후 환경일기장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다.

동련은 대상 5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연령별 활동을 소개한다. 나비대원은 7세 노랑나비, 초등학생 흰나비, 중학생 호랑나비, 고등학생 부처나비로 구분해 활동한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모집인원 중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기 나비대원 100명을 선정해 봉사시간 8시간을 수여한다. 참가방법은 사단법인 동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051)851-0853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야법보선원, 개원 2주년 법회

가야법보선원(주지 구담)은 4월 16일 경내에서 '가야법보선원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및 '원순 스님의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화엄경〉 번역 불사 입재식' 을 봉행했다.



주지 구담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을 편찬하고 번역하였던 원순 스님이 방대한 〈화엄경〉 번역 작업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화엄경〉 간행 불사의 첫 결과물로 '보현행원품' 독송본과 사경본을 먼저 선보인다. 평소 난해함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화엄경〉을 많은 불자들이 쉽게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가야법보선원은 부산의 번화가의 중심지인 서면에 위치한 도심 포교당이다. 가야법보선원은 개원 후, 지도법사 원순 스님의 원격 화상법회로 비대면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진으로 결실 맺은 반가사유상 점안

진주불교회관, 4월 17일 점안법회

2000일 〈법화경〉 독송
정진 회향불사로 진행


진주불교회관은 4월 17일 회관 2층서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법화경〉 독송으로 정진을 이어 가고 있는 진주불교회관이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4월 17일 회관 2층에서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진주불교회관은 법화경 독송회를 구성해 코로나 기간에도 〈법화경〉 독송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반가사유상 점안법회는 2000일 〈법화경〉 독송 회향 불사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보선 스님, 성각 스님, 법화경 지도법사 지산 스님,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안정임 진주불교회관 부이사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은 "코로나란 재앙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기, 진주불교회관 불자들의 흔들림 없는 정진 결과가 반가사유상 점안"이라며 "가야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반가사유상을 조성하기로 서원을 세우고 이루어진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진주불교회관은 〈법화경〉 독송 1000일 기도를 진행한 2020년 11월 7일경 반가사유상 조성을 발원했다. 그동안 불사에는 스님을 비롯해 총 121가구의 재가불자들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표충사, 제555회 사명대사 춘계 향사

밀양 표충사가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봉행하고 호국불교의 정신을 기렸다. 표충사(주지 진각)는 4월 19일 경내에서 '제555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향사' 를 봉행했다.



향사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종사영반 및 헌다 △내빈소개 및 헌화 △유교제향 △석전의례 △추모사 △봉행사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향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법선 스님, 인산 스님, 보화 스님을 비롯해 황걸연 밀양 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겨냈다. 지금도 통일과 코로나 극복 등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도 동물복지 시대…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경남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개장

4월 16일 특설무대서 협약식과 개장식 열려 지원은 부지 무상임대 통영시, 시설투자 나서



강석주 통영시장(왼쪽서 일곱번째) 등 참석한 내빈들이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을 알리는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경남 통영=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곱게 단장한 반려견들이 잔디밭을 제집처럼 누빈다. 오랜만에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 노는 반려견을 바라보는 견주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함께 뛰논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고 키우는 '펫팸족' (Pet+Family,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놀이터와 복합시설들이 잇달아 개장하고 있다. 특히 남해 바다와 섬, 관광도시로 유명한 통영시에 반려동물을 위한 '숲속 놀이터' 가 경남 지역 최초로 사찰 경내 숲에 개장돼 관심을 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과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4월 16일 통영지원 입구 광장에서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협약식 및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은 민선 7기 강석주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보조사업자로 나서면서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협약 및 개장식에서 통영시청 박경수 농축산과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 '반려동물 놀이터' 는 부지 2000㎡에, 중소형견(846㎡)과 대형견(902㎡)을 구분하는 시설이 조성됐고, 관리실(24㎡)과 음수대 놀이기구, 소변기, 목줄거치대 등의 부대 편의시설을 함께 갖췄다"며 "2020년 추경예산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대상자 공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해 10월 착공 후 올 3월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석주 통영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통영시가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확보를 위해 고심할 때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통영시는 경남 최초로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기반 확충에 노력해 왔다.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에 이어 반려동물 복합지원센터도 임기 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시장은 "오늘 개장한 놀이터가 반려인과 반려 동물이 서로 교감하며 비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소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우리 통영시는 비반려인 인식 전환과 생명존중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 전경 모습.

손쾌환 통영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이번에 놀이터가 개장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 모든 생명이 공존 공생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사찰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는 것이 이례적인데다 또한 엄숙해야 할 수행 환경을 침해 받는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이 많았다"며 "개장 전 1주일 동안을 견주님하고 개가 노는 것을 계속 지켜봤는데 반려견만 좋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이곳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서 제일 쾌적하고 좋은 장소다. 그래서 편하게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잘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동물하고 정말 사람이 상생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통영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마음도 쉬고 힐링과 치유 및 휴식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날 놀이터 협약 및 개장식은 강석주 통영 시장과 손쾌환 통영시의회 의장, 배도수 통영시의회 부의장, 배윤주 총무기획위원장, 김용환 산업건설위원장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해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놀이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치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05-32번지이다.

4월 18일, 창녕 약수사 다보탑 낙성법회

지암 스님 "탑 조성 인연은 가장 큰 공덕"


경남 창녕 약수사 대중들이 다보탑 불사 회향을 축하하고 있다.

경남 창녕 약수사(주지 지암)는 4월 18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다보탑 불사회향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약수사 주지 지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불사 완공된 약수사 다보탑은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다보여래 상주증명(多寶如來 常住證明)' 을 상징한 것이다. 말하자면 석가여래의 설법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찬탄하는 다보여래를 상징한다"며 "〈법화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영취산서 이 경을 설파할 때 다보여래의 진신 사리를 모셔 둔 탑이 땅 밑에서 솟아나오고, 그 탑 속에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설법을 찬탄하고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도대표로 나온 배재원 부산불교명상포럼 회장(천수산업개발 상임고문)도 축사를 통해 "특히 오늘 제막한 약수사 다보탑에는 지암 큰 스님께서 10여 년간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서 모셔 온 부처님 진신 사리가 모셔져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축하했다.

창녕 약수사=김주일 기자

무등 스님 "나무숲센터 전법 확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 취임


대표 법일 스님, 나주 미륵사 회주 원일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 · 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혜오 스님 · 상진 스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여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신임대표에 천룡사 무등 스님이 취임했다. 4월 17일 나무숲센터에서 열린 이취임식서 무등 스님은 "두 前 대표 스님이 광주에 불교환경운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 새 전용공간 나무숲센터에서 더욱 정진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 · 취임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前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나주 미륵사 회주 원일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 · 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혜오 스님 · 상진 스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연혁보고, 축사(도성 스님, 법만 스님, 법일 스님, 정영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축하영상, 이임사, 공로패 증정, 취임사, 실무자 소개, 축하공연(가수 박양희)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2020년 2월 개관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나무숲센터는 총 4억 7000만 원이 소요됐다. 전체 100여 평의 공간에 2층 사무실과 공양소, 3층 그린담마홀, 청소년환경교육센터 나무숲으로 구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참당암 2000일 지장기도 회향

신중탱화 점안식 · 산신재 봉행


는 법을 제시해 주셨다"며 "참당암 선방에서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삶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력신앙"이라고 강조했다.

고창 선운사, 도솔암과 함께 지장기도 성지로 알려진 참당암이 4월 18일 2000일 지장참회기도를 회향하고 3000일 기도입재 및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은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고통의 원인을 없애

이어 오후에는 산신각에서 4번째 의 운국사 산신대재가 봉행됐다.

한편, 참당암 1000일 지장기도는 삼독을 없애고 과거 모든 죄업이 소멸되기를 발원하며 2015년 7월 5일 시작됐다. 100일마다 선망영가들을 위한 천도재가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 사성암 마애삼존불 조성

사성암은 4월 19일 사찰 암벽에 조성한 마애삼존불과 주변에 약사여래 12대원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대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성암은 약사여래 상주도량이다. 약사여래께서 항상 사성암에 깃들어 있어 이를 보호하는 신장님인 약사여래12대원상을 조성하게 되었다"며 "이제 약사여래불, 마애삼존불과 오십삼불, 12대원상이 조성 완료되면서 한국최초의 약사여래 도량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좋은 기운들이 모여 약사여래 기도도량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성불사는 신도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1년 6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조성한 약사여래 마애삼존불은 충남 무형문화재인 김광열 석장이 기존 사찰 마당에 있는 바위에 양각하는 방식으로 조성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12년 日은둔수행 117번째 회향 나와

일본 츄니치 신보, 4월 16일 특별보도

日천태종 난행 중 하나
17세기 후 117명 회향
새 수행자 나올 때까지
다시 난행 수행 들어가

박영빈 객원기자



천태좌주에게서 회향인증서를 받는 코신 스님. 사진출처=교토신문

일본 천태종의 최고 난행(難行) 중 하나로 꼽히는 '12년 은둔행(十二年籠山行)'을 회향한 스님이 나왔다. 12년간 암자의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은둔하는 이 수행의 회향은 17세기말 제도가 정비된 이래 지금까지 117번째다. 4월 16일, 일본 종교문화 전문지 '츄니치 신보'는 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천태종에는 4가지 난행이 전해지고 있다. 총본산인 히에이잔(比叡山)의 둘레 30km를 1000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순례하는 '천일회봉행(千日回峰行)', 염불삼매를 중심으로 4종의 삼매를 무기한으로 정진하는 '사종삼매(四種三昧)', 12년간 은둔하며 수행하는 '12년 은둔행', 그리고 재가자들을 위한 '거사림(居士林)'이다.

이 모든 수행은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사종삼매행은 사망자가 나오기도 해 근대에 한번 중단된 적이 있을 정도다. 재가자를 위한 수행조차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2년 은둔수행은 일본 천태종 종조인 사이쵸(最澄) 대사 묘소가 있는 암자인 죠도인(淨土院)을 지키는 수행이다. 사이쵸 대사 암자에서 12년간 좌선과 교학을 연찬하는 수행법으로 정립됐으나 중세에 쇠퇴 한 후 17세기 말 묘소를 지키는 소임이 추가되어 제도가 정비됐다.

은둔행에 지원하는 스님은 끊이지 않았지만 아무나 암자에 들어갈 수 없다.

지원자가 불보살의 영험을 직접적으로 겪는 증표가 나올 때 까지 무기한으로 매일 3천배를 올리며, 증표가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죠도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은둔행자가 일단 암자로 들어서면 산문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이 행자는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쵸 대사 진영에 공양과 차를 올리고 도량을 청소해야 한다. 이후 좌선과 교학 연찬에 힘쓴다. 수행기간 중에는 신문, 휴대폰, TV 등 외부 소통수단이 모두 차단된다. 이 수행을 하는 이는 진영을 시봉한다는 뜻에서 '시진(侍眞)'이라는 소임명으로 불린다.

17세기부터 시진에 나선 이는 지금까지 117명으로 무사히 12년의 수행을 회향한 이는 81명 뿐이다. 엄격한 계율과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시진 중 25명은 지병과 체력고갈로 입적했다.

이달 초 은둔행을 회향한 타나베 코신 스님은 지난 1일 봉행된 회향식에서 천태좌주(天台座主) 모리카와 코에이 스님으로부터 수행을 성만했음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고 정식으로 수행을 완료했다.

2009년 4월 은둔행에 입재한 스님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신심으로 이겨냈다. 오히려 생각보다 12년이 빨리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스님은 2002년 출가하면서부터 이 수행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코신 스님은 "어린시절, 2차대전 후 최초로 12년 행을 마친 호리자와 소몬 스님의 수행기를 읽고 '나도 같은 수행을 하고 싶다' 고 생각했다. 책을 읽던 2개월간 부처님을 뵌 것 같은 환희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지는 새로운 시진이 등장할 때 까지 다시금 죠도인에 은둔할 예정이다. 스님은 다시금 은둔에 앞서 "사이쵸 대사께 헌신하며 세계 평화와 코로나19 종결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 폭력에 25만 명 난민 발생"

UN미얀마 특별보고관, 쿠데타 상황 보고



2021년 3월 28일 미얀마 사가잉 지역에서 시민들이 군부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25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인들이 난민 신세에 처했다는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가 나왔다.

4월 21일(현지시간) 중동 유력매체 알자지라(Al Jazeera)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톰 앤드류스(Tom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SNS를 통해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 최소 737명이 사망하고 3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특히 약 25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난민 신세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이어 "이 같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 세계인들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국제 행동을 촉구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현지 소식통'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았다. 현지 구호단체 '프리버마 레인저스'는 4월 14일 "미얀마군의 지상 공격으로 소수민족 주거지인 카렌주 북부 지역에서 2만 4000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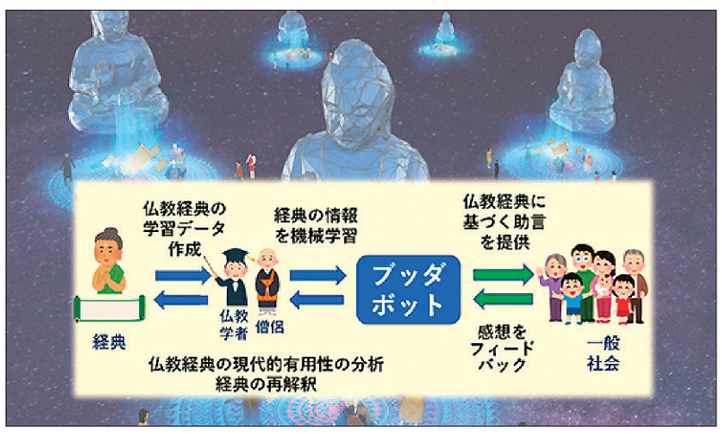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25만 명에는 미얀마 군부로부터 탄압받는 소수민족 외 자국 내 혼란상황으로 집을 떠나거나 생계에 타격을 입은 미얀마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미얀마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Myanmar Now)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최근까지 미얀마 핵심 산업인 의류봉제업 종사자 20만 명 등 대규모 실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 배운 AI, 현대인 고민에 답하다

교토대 연구팀, 불교설법 AI 개발

퀀텀 애널리스틱과의 합작
구글 BERT 알고리즘 적용
정신 상담과 케어 등 활용



붓다봇의 1차 개발 발표모습. 사진출처=렛지 AI

교토대학의 '마음의 미래 연구센터'와 AI서비스 업체인 '퀀텀 애널리스틱'이 합작한 AI연구 그룹이 최근 현대인의 고민과 사회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답변하는 불교 설법 AI '붓다봇'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4월 13일 일본의 인공지능 전문매체인 '렛지 AI'는 이 흥미로운 작업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교토대학의 쿠마타니 세이지 부교수와 퀀텀 애널리스틱의 CEO 후루야 토시카즈는 '붓다봇'의 1차 결과물을 발표 하면서 "아직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문장의 형태로 답변 할 수 있는 상태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AI 개발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BERT' 알고리즘을 응용, 초기불경 중 일반인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숫타니파타〉서 추출해 그 내용을 AI에게 학습하게 했다. 경전 내용 중 현대의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현대인에게 이해 될 수 있는 법문만을 선정했다.

이후 불교학자와 스님들의 도움으로 질의응답의 형태로 정리한 데이터 시트가 작성됐다.

개발팀은 "붓다봇은 정신건강과 컨설팅, 교육산업 등의 분야에 응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학계, 산업계, 종교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계는 AI 최후 개척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종교 분야 진출과 불교 경전이 가진 현대적인 가치의 과학적 분석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계는 노동자의 상담이나 정신건강 케어 분야 진출을 기대한다. 사회생활 속 여러 문제 해결의 방안을 불교적 가치에서 찾아냄으로써 컨설팅에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종교계는 AI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해 관광불교나 장례불교로 불리는 일본 불교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를 전한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팀은 "현재 붓다봇 답변의 정밀도가 낮고, 답변 오용이나 의도적인 악용 등으로 사용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당분간 학술 이용 및 모니터링의 용도 만으로 공개하며 대중공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팀은 "스님과 사찰 측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종교와 AI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박영빈 기자

역사·생물학자 불교유산 보호 나서

인도 90종 새 서식지 존재…"살아 있는 寶庫"



사진출처=더힌두

역사학자 및 생물학자들이 2000년 된 고대 불교 유적지, 톳라콘다(Thotlakonda)를 보호하기 위해 합심했다. 인도 동남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州)의 항구도시 비사카퍼트남(Visakhapatnam)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불교 문화적 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90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매체 더힌두(The Hindu)는 4월 20일 "최근 세계유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톳라콘다에 '유산 지킴이'들이 모였다"며 "2000년 된 과거 유적지로 제이쉬리 하탄가디(Jayshree Hatangadi)가 학자들을 이끌고 여정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유적지가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란 화두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가장 큰 도시인 비사카파트남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톳라콘다 불교 단지는 기원전 2세기와 기원후 2세기 사이에 번성해 3세기 말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톳라콘다는 바비콘다·파뷸라라콘다 불교 복합단지 인근에 나란히 생겨났으며,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인도 불교를 전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고대 도시 칼링가(Kalinga) 지역에 속해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승려들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 이곳을 순례했다고 전해진다.

1976년경 인도 군 당국이 해군기지 설립을 위해 측량 작업을 펼치던 중 이곳을 발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이 지역을 고고학적 유적에 따른 보호 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 당국은 이곳에 VIP들을 위한 12헥타르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

학자들은 이 지역을 개발 중인 인도 정부에게 반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날 모였다. 이들은 "톳라콘다 지역은 현재까지 노출된 곳 외에도 더 폭넓은 규모로 확대 보호되어야 한다. 대규모 불교문화 유산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다"며 "정부가 이 지역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영산재보존회 총회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오니 회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1년 **5**월 **3**일 (음. 3월 22일) **월요일 오후 3시**
▶ **장 소** : 봉원사 설법전
▶ **안 건** : ① 제33회 영산재 봉행에 관한 건
② 영산재 회원 정리에 관한 건
③ 회원 회비에 관한 건
④ 기타사항
▶ **문 의** : **02-392-3008** (보존회 사무국)

※ 보존회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보존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회를 마친 후 회원 정리가 들어갈 예정이오니 회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3회 영산재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분들 위주로 총명지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 회장 최원허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들어

지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떨어져 지극히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신명나는 본사 견본으로 소리 비교만 해보세요!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 시설들과 장난감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1~4/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뾰족한 마음 가시 싹뚝 잘라 내세요"



가시를 거두세요
광우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1만 5800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강의"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자꾸자꾸 듣고 싶어지는 말씀"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반복해서 들으며 마음을 다집니다"…. BTN 불교TV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광우 스님의 소나무〉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다. 시청율 1위, 인기 검색어 1위를 놓치지 않는 '소나무 스님'의 명강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불교에 대해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광우 스님이 종교를 초월해 고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쓴 에세이 〈가시를 거두세요〉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마음속에 뾰족뾰족 돋아난 가시로 나와 남을 찌르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마음돌봄 이야기다.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의 고민과 아픔, 갖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명쾌한 해법을 담고 있다. '투명 고릴라 실험' '변화맹 실험' 등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실험과 불교 설화, 자신의 수행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돌아보게 한다. 내 삶의 문제와 잇닿아 있는 현실적인 사례들로 접근하니 더욱 공감이 간다. 각 장의 마지막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상황별 생활명상법을 수록해, 작은 실천으로도 평온함과 고요함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선사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광우 스님**은?

책과 명상을 좋아하는 수행자. 방송과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고민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종교를 초월해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나무' 스님. 열아홉 나이에 합천 해인사로 출가했다. 여러 사찰의 불교대학서 강의하다 우연히 부탁받은 것을 인연으로 BTN에서 설법을 시작했다. 이후 '광우 스님의 소나무(소중한 나, 무량한 행복)'를 5년째 진행하며 시청률 1위 프로그램으로 이끌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꽃차와 사상의학 만나 건강한 몸 만들다


의이인 꽃차 제다법


승마 꽃차 제다법


산사 꽃차 제다법



꽃차, 사상 의학으로 만나다
김형기 임병학 공저/중도기획 펴냄/3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꽃차와 사상의학이 만나다.

꽃차와 사상의학의 만남은 우리 땅에 자라는 꽃과 우리나라서 창안된 사상의학의 만남이다.

우리 선현들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을 사용한 꽃차를 오래 전부터 널리 음다(飮茶)해 왔으며, 현대에는 꽃차를 이용한 마음치유와 몸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상의학은 네 가지로 다른 장부(臟腑)의 이치에 따라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 소양인(少陽人) 태양인(太陽人)을 밝히고, 사상인의 마음론과 기론을 바탕으로 마음과 몸의 건강을 논하고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꽃차, 사상인을 만나다'로 사상인의 열증과 한증에 따른 꽃차를 분류하고, 꽃차의 약성, 꽃차와 사상인의 마음작용 · 몸 기운, 꽃차 블렌디드 한방꽃차, 꽃차의 제다법을 설명하였다. 제2부는 '사상의학, 근본을 익히다'로 동무 이제마와 『동의수세보원』, 사상인의 마음작용(心氣)과 몸기운(生氣), 사상인 변증론과 사상인 변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꽃차의 마음작용과 몸 기운 밝히다.

첫째, 원전에 바탕해 꽃차의 약성을 서술한다. 꽃차의 약성은 〈동무유고〉, 〈동무약성가〉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시대 대표적 본초학 저술인 〈본초정화〉와 허준의 〈동의보감〉 그리고 〈향약집성방〉 등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 꽃차와 우리 사상의학의 만남
> 사상인의 마음론과 기론 바탕
> 꽃차 마음작용과 몸기운 설명

둘째, 사상의학의 근본인 마음과 기(氣)를 근거로, 물성(物性)인 꽃차의 형이상적인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동의수세보원〉에서 밝힌 폐기(肺氣) 비기(脾氣) 간기(肝氣) 신기(腎氣)의 심기(心氣)와 수곡온기(水穀溫氣) 열기(熱氣) 량기(涼氣) 한기(寒氣)의 생기(生氣)를 통해 꽃차의 마음작용과 몸 기운을 설명하였다.

셋째, 〈동의수세보원〉의 대표적 처방을 바탕으로 '블렌디드 한방꽃차'를 만들었다. 2~3개를 블렌딩하여 꽃차의 약효를 배가시키고, 꽃차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로운 맛을 더하였다.

넷째, 꽃차 사진과 블렌딩한 한방꽃차의 우림한 사진을 통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꽃차의 제다법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꽃차를 직접 만들어 음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김형기**는?

충북대와 청주대 평생교육원 한방꽃차소믈리에 교수로 출강해 한방꽃차를 가르치고 있으며(건국대 아주대 단국대 한밭대 배재대 등 출강), 한국한방꽃차협회(주) 공동대표와 충청한방꽃차협동조합 이사장, 원광대 마음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원광대 대학원 한국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의수세보원〉과 한방꽃차'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다. 저자는 꽃이 너무 좋아서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시간 동안 꽃차를 덖고 연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저자 **임병학**은?

충남대 대학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 분야는 〈주역〉을 바탕으로 일부 김항(1826~1898)의 정역과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사상철학,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의 원불교학이다. 대표 저서는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동의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 〈중용(中庸), 주역으로 풀다〉 등 10여 권이 있고, 논문은 역학 연구 20여 편, 사상철학 20여 편, 원불교학 등 20여 편이 있다.

우리 불교 문화가 정말 어렵다구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9천원

불상은 왜 금빛일까?
절에는 왜 여러 부처님이 계실까?
절에는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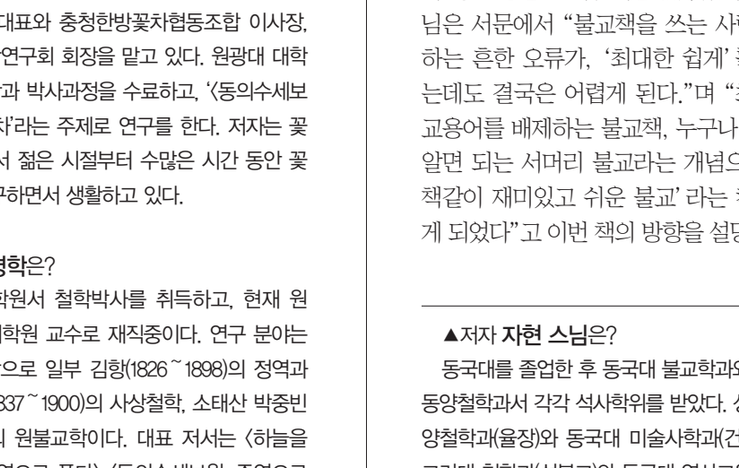
이 책은 수십 년간 절에 다녀도 풀리지 않았던 의문, 어깨너머로 배웠던 불교 문화를 가장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 입문자는 몰라서 어렵고, 불자들은 묻지 못해 어려웠던 불교. 어려운 불교용어는 빼고 200여 장의 사진을 더해 쉽고 친숙한 설명으로 풀어낸 자현 스님의 눈높이 사찰 해설서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이다. 건축, 선불교, 한국고대사, 불교 교육, 회화, 율장 등 5개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현 스님은 한국사에서부터 미술학, 불교교리를 관통하는 스님이자 불교 지식인이다. 또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불교티비 등을 통해 불자들과 소통하며 스님만의 개성있는 화법과 시선으로 불교를 전한다.

이번 책은 불교의 입문에서부터 문화, 신앙, 순례로 구성된 불교 '생초보 입문서'로 불교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기본은 빠뜨리지 않는 충실한 짜임새를 갖추었다. 특히 스님은 서문에서 "불교책을 쓰는 사람들이 범하는 흔한 오류가, '최대한 쉽게'를 추구하는데도 결국은 어렵게 된다."며 "최대한 불교용어를 배제하는 불교책, 누구나 이정도만 알면 되는 서머리 불교라는 개념으로 '그림책같이 재미있고 쉬운 불교'라는 컨셉을 갖게 되었다"고 이번 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자현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한 후 동국대 불교학과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율장)와 동국대 미술사학과(건축) 그리고 고려대 철학과(선불교)와 동국대 역사교육학과(한국고대사) 및 동국대 국어교육학과(불교 교육)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교학부서 교수와 불교학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각권 판매〉



❶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❷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❸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❹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❺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❻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❼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❽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❾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❿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⓫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⓬재물을 부르는 진언
⓭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봉선사서 만나는 또 다른 천불천탑



봉선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오채현 석조각 초대전
'해피 붓다, 해피 타이거'展 4월 27일 ~ 8월 31일

코로나 극복 염원 석불석탑 등 20여 점 경내 전시
원석 25t 높이 3.5m 무게 18t 초대형 사방불 압권
석가모니불 등 화강석조각 아름다움 극치 보여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코로나19로 힘겨운 대중을 부처님의 자비미소와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호랑이의 해학 · 풍자로 보듬어보는 전시가 열린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주지 초격)는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채현 석조각 초대전 '해피 붓다, 해피 타이거'를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이번 전시는 봉선사 경내 연밭 주변과 주자창 인근에 자비미소가 담긴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비로자나불, 사방불, 석탑, 석등 등의 불교조각과 호랑이의 미소를 담은 '해피 타이거' 등 오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봉선사 경내 곳곳에 모신 오 작가의 불상과 석탑들은 마치 그 옛날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떠올리게 한다. 힘겨움 속의 대중이 어려운 시절을 불심으로 극복하려 했던 그 옛날을 떠올리게 한다. '코로나19'라는 시련을 넘어야 하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선사에서 만나는 자애로운 부처님과 염원의 석탑은 그 옛날 힘겨웠던 대중이 미륵불의 시절을 꿈꾸며 기댔던 염원의 천불천탑을 닮았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부처님과 석탑을 모신 경주 남산의 모습도 떠오르게 한다. 마치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을 되살려 놓은 듯하다. 섬세하면서 견고하고 엄숙하면서도 자비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불상은 안정된 비례, 풍부한 입체감, 우아한 선이 만들어내는 조각의 미학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 화강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 중 초대형의 사방불이 눈길을 끈다. 가로가 2.2m, 세로가 1.5m이며 높이가 3.5m로 무게는 18t에 이른다. 오 작가는 25t에 달하는 화강암 원석을 가공해 동서남북 사방에 대형 불보살을 모셨다. 동쪽에는 관세음보살, 서쪽에는 지장보살, 남쪽에는 석가모니불, 북쪽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셨다. 동쪽에 모신 관세음보살은 법의를 생략하고 정병을 들고 있는 미소불이 연화좌대에 앉아 있다. 동서남북 사방에 새긴 대형 부처님 이외에도 공간과 공간 사이사이에 작은 부처님 108분을 모셔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대중의 마음을 위로한다. 또한 곳곳에 연꽃을 타고 있는 작은 부처님 8분을 모셔 8정도 실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와 함께 빈 공간에 구름을 탄 부처님 6분을 모셔 6바라밀을 실천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염원을 보여준다.



봉선사 경내에 전시중인 오채현 作 '미륵불'

5층석탑과 3층석탑도 전시된다. 5층 석탑은 자연석 좌대를 포함해 높이가 4.5m에 이르며, 3층석탑은 기단석과 탑신, 상륜부로 구성됐다.

우리 민족과 친근하면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호랑이의 해학적 미소가 담긴 호랑이 조각 7점도 전시된다. 오 작가의 호랑이는 우리 조상들의 넉넉한 인정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나게 한다. 호랑이에게서 우러나는 수더분한 인정은 작품의 재료인 화강암과 그것을 다룬 손맛 덕에 더더욱 잘 드러난다. 돌에 순수하면서도 원초적인 형태를 가해 돌이 지니고 있던 특질이 더욱 생생하게 부각된다. 그렇게 탄생한 호랑이의 얼굴은 우리들 할아버지의 너털웃음처럼 보이고 우리들 할머니의 함박웃음처럼 다가와 힘든 시간을 위로한다.

오 작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조각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석조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불모(佛母)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오 작가가 4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정과 망치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조각한 부처님과 호랑이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들이다. 또한 오 작가는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불상 조각법을 고집하며 인고의 시간을 들여 돌에 부처님의 미소와 호랑이의 해학이 담긴 모습을 조성해 오고 있다.

초대전을 마련한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대가람 봉선사에 인자한 미소와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줄 부처님이 나투셨습니다. 석불조각의 대가인 불모 오채현 작가가 조성한 돌부처님입니다. 호랑이의 익살스런 해학과 풍자도 함께합니다. 봉선사 도량을 거닐며 돌에 화현한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시길 바랍니다"며 석조각전에 대중을 초대했다.

오채현 작가는 1962년 경주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마치고 이태리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33번의 개인전과 아트시카고 , 키아프 , 상해 아트페어 , AAF Battlesea Fair 등 다수의 국내외 전시에 참여했다.

천년 고려사경 혼과 맥 되살려



이순자 作,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전문

이순자 '고려 천년의 혼 가슴에 담다'展
대구문화예술회관 4월 27일~5월 2일

고려사경보존회(회장 강주열)는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1전시실에서 한국예술문화명인(불교사경부문) 이순자 작가 초대전 '고려 천년의 혼 가슴에 담다'를 개최한다.

고려사경보존회의 출범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이번 전시에는 길이 100m에 달하는 법화경금니사경 전문을 비롯해 불교 경전의 내용, 설화 등을 쉽게 표현한 '금니사경변상도', 치유, 건강, 부귀를 담은 '황금길상도' 등 이 작가의 사경(寫經) 100점을 선보인다.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는 사경의 권(卷)머리에 불교 경전 내용과 교리를 알기 쉽게 함축해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고려사경 천년의 혼과 맥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모두 1000년 전의 고려사경 제작방식으로 필사했으며 99.9%의 금니로 고려 장지에 재현했다. 작품에 쓰인 고려장지(옻칠한 종이)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고려시대 방식으로 만든 종이다.

이 작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사경 작업을 하고 있고, 부처님 말씀을 장엄한 작품으로 표현해 코로나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환희심과 발심을 일으켜주고 싶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불은(佛恩)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고려천년의 혼을 가슴에 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경보존회 강주열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맥을 같이한 금니고려사경, 사경변상도, 황금길상도 등을 통해 고려 천년의 혼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심신이 지친 모든 분들께 이번 특별전이 큰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려사경보존회는 이번 대구전시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 순회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대만 등 세계 순회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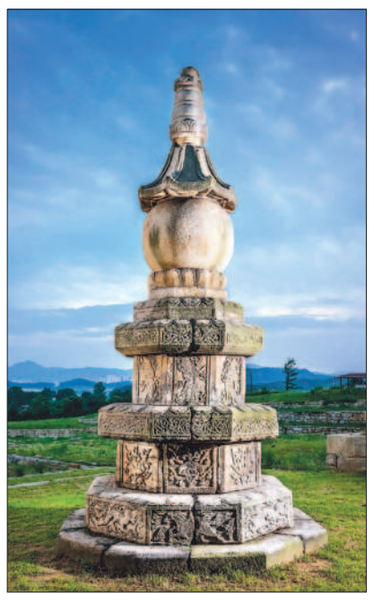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조선왕실 발원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4월20일 지정예고
"조선 전기 석조미술 대표작"
백양사 아미타설법도 보물로
"의겸 화풍 확인 불화" 평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물로 지정예고된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사진 왼쪽)과 보물로 지정된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사진 오른쪽)

조선 전기 왕실의 발원으로 조성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이 보물로 승격된다. 도난당한 뒤 2006년 환지본처한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과 전북도 유형문화재 '무주 한풍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이하 사리탑)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발원하여 건립한 진신사리탑으로 사적 '양주 회암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사리탑은 규모가 장대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사리탑의 형식과 불교미술의 도상, 장식문양 등 왕실 불교미술의 여러 요소를 알 수 있는 귀중한 탑이다.

사리탑은 팔각을 기본으로 구축된 다층의 기단부와 원구형 탑신, 상륜부로 구성돼 있다. 팔각을 평면으로 지대석 윗면에 2층으로 조성된 기단을 구축하고 다른 승탑에 비해 기단 면석은 높게, 갑석은 두텁게 치석하여 현존하는 사리탑 중 가장 높은 기단을 구비하고 있다. 탑신부는 원구형의 탑신을 지닌 또 하나의 승탑을 올려놓은 형상이다.

문화재청은 "전체적인 양식과 조영기법, 세부 문양들이 조선 전기의 왕릉을 비롯한 왕실 관련 석조물과 비슷하다. 사리탑의 규모, 치석 상태, 결구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당대 최고의 석공이 설계·시공했을 것"이라며 "사리탑은 조선 전기 석조미술의 정수이자 대표작으로 역사·학술·조형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무주 한풍루'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로 현판은 한석봉이 썼다고 전해진다. 수많은 묵객이 글과 그림으로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당시 시대상과 문화상을 알 수 있는 건물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4월 22일 공고를 통해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994년 9월 도난됐으나, 2006년 9월 지금의 제자리로 환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불화이다. 본존 아미타불이 여러 제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75년(영조 51)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작품이다.

수화승 색민을 비롯해 계헌 등 총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하여 그린 작품으로, 승려 환월당 민숙이 외조모 유씨 부부와 부모 봉씨 부부가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주문 제작한 것이다. 승려가 이처럼 직접 대시주자(大施主者)로 나선 사례는 매우 드물다.

불화의 장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제작 당시의 원형에 큰 손상 없이 전래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 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으로 2m가 넘는 긴 화면에 압도적으로 그려진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표현 등에서 장중함과 상승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는 수화승 색민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색민의 만년기 작품인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색민과 함께 그림 제작에 참여한 계헌의 입장에서는 처음 수화승이 되어 그린 작품이다. 이를 통해 의겸-색민-계헌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의겸 화풍의 전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문화재청은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 불화"라면서 "불화의 조성시기, 참여자 명단 등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복장낭 등 복장유물 6건도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예고한 회암사지 사리탑과 무주 한풍루에 대해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대, 명상 상담 어떻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5월 15일 학술대회

코로라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가운데 비대면 명상과 상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이필원)는 5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명상 및 상담 실천 방법'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하며, 유튜브 '명상심리 Meditation TV'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비대면 불교 명상 사례 조명과 상담 방법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다. 주요 발제로는 △'비대면 불교명상 실천 사례'(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명상과 청소년 비대면 집단상담프로그램 사례 연구- 인성교육을 중심으로'(유소정 동국대) △'비대면 마음챙김과 자비 기반 집단상담 참가자들의 경험 연구'(이은상 마음사랑인지행동치료센터) △'명상에 기반하는 반야상담을 비대면 상담 환경에 적용한 효과'(정은의 캐나다 위즈덤카운셀링센터)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이필원(동국대), 이성권(메가스터디심리센터), 이종의(한국에니어마인드연구소), 강명희(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가 참여하며 종합토론도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무우수아카데미 화공·모사공 수강생 모집

4월 말 개강… 12주 과정

화공·모사공 등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양성하는 강좌가 개설된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무우수아카데미는 문화재수리기능자 화공과 모사공 자격증을 대비하는 강좌를 4월 말 개설한다.

화공 강좌에는 황두현(단청, 문화재수리기술자·화공, 문화재수리기능자)이, 모사공 강좌에는 이혜경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센터 선임연구원이 각각 강사로 나선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공은 사찰이나 궁궐 등 전통건축에 행해지는 단청 업무를, 모사공은 각종 서화류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모사 업무를 맡는다. 화공 강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시에 진행되며 12주 과정이다. 모사공 강좌는 총 3분기로 진행되며 '화조화' '불화' '초상화' 순으로 다양한 시제를 집중적으로 모사하고 연구한다. 모사공(화조화)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4시, 6시~9시, 12주 과정이다. 강좌 신청은 무우수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무우수 아카데미는 전통미술 계승과 저변 확대를 위해 2014년 설립됐다. 무우수는 룸비니동산에서 마야부인이 붓다를 낳을 때 붙잡았던 나무로 '근심걱정이 없는 큰나무'라는 뜻이다.

신성민 기자

신임 문화재위원에 스님 9명 위촉

문화재청 오는 4월 30일 위촉식 예정

5월 1일부터 2년 임기
전문위원도 9명 위촉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에 스님 9명이 위촉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는 제29대 문화재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문화재위원 80명을 4월 30일 위촉한다. 이중 스님 문화재위원으로는 9명이 위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문화재 분과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동산문화재 분과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적 분과에 조계종 종회의원 각림 스님이 각각 위촉된다.

천연기념물 분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 매장문화재 분과에는 조계종 문화특보 혜일 스님, 근대문화재 분과에 중앙종회의원 경암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민속문화재 분과에는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 세계유산 분과에는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 궁능 분과에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이 위촉된다. 임기는 올해 5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문화재전문위원에도 9명의 스님이 위촉된다. 건축문화재 분과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이, 동산문화재 분과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사적 분과에 총무원 사서국장 능엄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천연기념물 분과에는 조계종 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법은 스님, 매장문화재 분과에는 조계종 성보위원 현근 스님, 근대문화재 분과에는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 스님이 위촉된다.

민속문화재 분과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호암 스님, 세계유산 분과에는 연등회 사무국장 선효 스님, 궁능 분과에 총무원 문화국장 법성 스님이 위촉될 예정이다. 문화재전문위원의 임기는 문화재위원과 동일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1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문화재위원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국외 반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 △문화재 등록 및 말소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임기는 2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명상 연구 진흥 위한 운강학술상 공모

오는 7월 10일까지…11월 시상식 예정

불교명상과 심리치료 연구 진흥을 위해 제정된 운강학술상 공모가 진행된다.

운강학술상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제2회 운강학술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명상과 정신건강, 심리치료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명상 수행법을 창의적으로 해석·응용한 연구여야 한다.

응모자의 전공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 조교수 이하의 소장학자만 응모할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신청서의 추천인란에 지도교수의 서명이 필요하다.

공모 대상은 2018년 이후 발표된 학위논문과 출판 논문이며, 신청서를 운강학술상 카페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논문과 함께 PDF로 변환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논문을 심사해 9월 말 수상자를 발표하며, 11월 초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상 1명에는 1000만 원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작이 없을 경우 우수상 2명에 각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운강명상학술상은 명상학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운강 최훈동 한별병원장이 재원을 출연해 제정됐다.

신성민 기자

불기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아름답게 수놓은 꽃의 새봄입니다.
사바세계의 몸을 나투시어 모든 중생의 앞길을 밝혀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건강과 평화를 함께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辛丑年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 지사지국 접수처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현대불교
Tel. 02)2004-8216 Fax. 02)737-0698 E-mail. jabi2018@naver.com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6

▶ 17회 예고
부왕이 된 수시마는 탁실라 무혈입성을 도왔던 망갈라로이 형제에게 정사를 위임하다시피 한다. 이를 지켜본 친위대장은 그들의 농간을 보고 직언하지만 수시마는 듣지 않는다. 결국 친위대장은 빈두사라의 소환장을 받고 떠난다.



수시마, 탁실라 부왕이 되다

수시마 군사가 인더스강 한 지류에서 숙영한 지 사흘 만이었다. 탁실라로 정찰 나갔던 선봉대장이 돌아왔다. 선봉대장은 군사 대여섯 명만 데리고 탁실라로 잠입해 들어갔는데,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와 수시마 군막 앞에서 대기했다. 목동으로 위장한 선봉대장의 옷은 갑자기 내린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소나기는 군막을 후둑후둑 때렸다. 수시마는 누운 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빗소리는 문득 수시마를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곳에 있는 이복동생 아쇼까를 생각나게도 했다. 수시마는 코끼리경주대회에서 자신에게 1등을 양보한 아쇼까가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아쇼까는 체격이 바위처럼 단단했고 특히 무술에 능했다. 많은 왕자들 중에 단연 발군이었다. 자신이 아쇼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브라흐마교의 긴 기도문을 단 한 자도 빠트리지 않고 외우거나, 아버지 빈두사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빈두사라는 은근히 수시마를 사랑했다. 수시마가 어린 시절부터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잘해왔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등 심성이 고왔기 때문이었다.

"부왕이시여, 정찰 나갔던 군사가 돌아왔사옵니다."

측근 신하의 말에 수시마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선봉대장이 왔다는 말이오?"

"예, 그렇사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선봉대장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부왕이시여, 탁실라는 반란수괴가 왕 행세를 하고 있사옵니다."

"그곳 군사는 어떤가요?"

"오합지졸이라 저희 군사가 들어가면 바로 진압할 수 있사옵니다."

선봉대장이 자신 있게 말했다. 선봉대는 강훈련을 받은 최정예군사였다. 도둑의 무리들이 합세한 반란군은 적수가 되지 못할 터였다. 탁실라 왕이 반란군에게 성을 빼앗긴 것은 인심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결코 성을 지키는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반란군이 쳐들어오자 성 안의 군사와 성민들은 그들에게 속속 투항해 버렸던 것이다.

"부왕이시여, 성민들이 모두 반란군 편에 선 것은 아니옵니다. 성 안에 살던 브라흐민들은 대부분 성 밖으로 나가버렸사옵니다."

"왜 그런가요?"

"반란수괴가 천민이기 때문이옵니다."

"나도 천민과는 협상할 수 없소. 기습작전을 펼쳐서 항복을 받아내시오."

그러나 선봉대장은 부왕과 의견이 달랐다.

"부왕이시여, 기습작전을 성공할 자신이 있사옵니다. 허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도 있사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오?"

"반란수괴를 유인해 생포하는 것이옵니다. 유인작전에 실패했을 때 공격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수시마는 선봉대장이 말하는 유인작전에 흥미를 느꼈다. 원래 잔혹한 싸움을 싫어하는 데다 천민을 멸시하는 성격 탓이었다. 반란수괴가 천민이라고 하니 자신과 싸울 상대가 못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단 조건이 있소. 난 반란수괴를 유인해 내더라도 그와 상대하지 않겠소. 선봉대장이 그 자를 처리하시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나는 천민이 왕 노릇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소. 망한 난다국을 보시오. 천민 마하빠드마가 세웠지만 결국 나의 할아버지 짠드라굽따 대왕님에게 무너지고 말았지 않소. 할아버지는 끄샤뜨리야였소."

수시마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컸다. 아버지 빈두사라는 끄샤뜨리야였고 어머니는 브라흐민이었던 것이다. 수시마는 탁실라에 입성한다면 반란수괴에게 쫓겨난 왕족들을 자신의 참모로 다시 기용할 방침이었다. 그래야만 탁실라 부왕이 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여겼다.

"쫓겨난 탁실라 왕의 자손들을 찾아보시오. 나는 탁실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만나보겠소."

"어렵지 않사옵니다. 탁실라 왕은 행방불명이오나 그의 친족들은 반란수괴에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성 안에 살고 있사옵니다."

"사실이오?"

"반란수괴에게 밀려난 탁실라 성안의 왕족들이 우리 정찰군사를 도왔사옵니다."

"아, 잘된 일이오. 어서 그들을 불러오시오."

"낮에는 위험하니 밤중에 데리고 오겠사옵니다."

마침 장대비처럼 퍼붓던 소나기가 멈추었다. 충직한 선봉대장은 자신이 한 말대로 움직였다. 불과 한나절 만이었다. 달이 뜨지 않는 컴컴한 밤이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숯덩이 같은 밤중에 행방불명된 탁실라 왕의 동생 두 명을 데리고 왔다. 수시마는 그들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어서 오시오."

"부왕이시여, 저희들은 살아 있으나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옵니다. 탁실라를 해방시켜주시옵소서."

"왕은 어디에 있소?"

수시마가 묻자마자 왕의 동생 중 한 명이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성 안의 소문과 달리 쫓겨난 탁실라 왕은 행방불명이 아니었다.

"우물감옥에 계시옵니다."

"쯧쯧."

수시마는 혀를 찼다. 지옥 같은 우물감옥에 던져졌다면 누구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런데 그대들은 왜 성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오?"

"미처 성 밖으로 도망치지 못했사옵니다. 반란수괴에게 겉으로 협조하는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사옵니다."

선봉대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내일 반란수괴에게 가서 말하시오. 빠딸리뿌뜨라에서 사신 일행이 오는 것을 봤으니 성 밖으로 나가 강변에서 마중을 하자고 말이오."

수시마가 눈을 껌벅거리며 말했다.

"그 말을 반란수괴가 믿겠소?"

"수괴는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사신들을 환영하려고 할 것이옵니다. 부왕님을 사신의 우두머리로 착각한 채 인정받으려고 크게 환영하지 않겠사옵니까?"

죽은 탁실라 왕의 동생 두 명은 반드시 성공시켜 반란수괴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겠다며 이를 갈았다.

"저희들은 원수를 갚고자 살아남았사옵니다. 내일이야말로 반란수괴가 우물감옥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옵니다."

"어서 성으로 돌아가 반란수괴에게 알리시오."

"예, 내일 아침 마우리아왕국 사신 일행이 강을 건너올 것이라고 보고하겠사옵니다. 제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지금 돌아가겠소?"

선봉대장이 한 마디 했다.

"오늘은 성 밖에 있다가 내일 새벽에 들어가시오. 그래야 반란수괴가 그대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이오."

"그렇게 하겠으니 꼭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들이 군막을 나간 뒤 수시마는 선봉대장만 자리에 남도록 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니 수시마는 불안했다.

"저 자들이 방금 한 말과 달리 반란수괴에게 밀고한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오?"

"부왕이시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어째서 그렇소?"

"반란수괴는 탁실라 왕을 죽인 그들의 원수이기 때문이옵니다. 죽은 탁실라 왕은 저 자들과 형제이옵니다. 좀 전에 저 자들의 표정을 보지 않았사옵니까? 복수심에 얼굴을 부들부들 떨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일 저는 산속에 매복해 있을 것이옵니다. 반란수괴가 마중하러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급습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왕께서는 저희 군사가 나타날 때까지 강을 건너서는 안 되옵니다."

"알았소."

다음날 아침. 수시마는 군막을 나와 초조하게 강변을 거닐었다. 오후가 되자 더욱더 긴장이 되었다. 군막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수시마 주변에는 신하 몇 사람만 남고 모두 다 산속으로 들어갔다. 선봉대장은 군사를 이끌고 산속 바위와 숲 뒤로 몸을 은폐했다. 선봉대장이 잘 구사하는 매복작전이었다. 석양이 기울 무렵이었다. 강물에 석양빛이 떨어져 사금처럼 번쩍였다. 그때 멀리서 석양을 등지고 말이 한 마리 달려오고 있었다. 탁실라 깃발을 든 군사로 보아 반란수괴의 전령이 분명했다. 수시마는 손에 진땀이 났다. 반란수괴의 전령이 강 저쪽에서 사신일행을 확인했다.

수시마와 몇몇 사신이 나와 강변에 섰다. 그러자 종이가 달린 화살이 하나 날아왔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사신 일행을 환영하오. 탁실라 왕인 나는 그대들을 진심을 다해 맞이할 것이니 잠시 기다리시오."

수시마에게 종이를 넘겨준 사신이 침을 퉤 뱉었다.

"부왕이시여, 반란수괴가 왕이라니 기가 막히옵니다."

"흥분하지 마시오. 저 자들이 눈치 채어서는 안 되오. 우리도 내 이름으로 환영해 주니 고맙다는 화살을 보내시오."

수시마 쪽의 강변에서 화살이 날아가자 종이를 펴본 전령이 즉시 돌아갔다. 한편 산속 바위 뒤에서 은폐하고 있던 선봉대장 휘하의 군사들은 몸을 더욱 엎드린 채 '공격개시' 명령만 기다렸다.

이윽고 반란수괴가 환영사절을 데리고 나타났다. 반란수괴만 말을 타고 있었다. 수괴의 참모와 호위 군사들은 걸어오고 있었다. 대국의 사신 일행에게 갖추는 접빈의 예였다. 반란수괴는 강변에 이르러서야 말에서 내렸다. 호위 군사들이 좌우로 서서 부동자세를 취했다. 또 다시 종이가 묶여진 화살이 날아왔다.

"탁실라 왕은 사신 일행을 환영하오."

수시마도 화살로 응답했다.

"마우리아왕국 사신 일행은 그대들의 환영을 잊지 않겠소."

강은 넓었지만 깊지 않았다. 코끼리가 건너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코끼리에 앉은 수시마의 신하들이 붉은 깃발을 높이 들었다. 선봉대장과 사전에 약속한 신호였다. 깃발이 강바람에 펄럭이자 갑자기 함성소리가 들려왔다. 선봉대장 휘하의 군사들이 반란수괴 군사를 공격하는 함성이었다. 반란수괴가 당황하여 말을 타지도 못했다. 자신의 말이 저만큼 달아나버렸다.

반란수괴 군사들은 뒤에서 벼락 치듯 급습하는 수시마의 선봉대장 군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강물에 뛰어들어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화살을 맞았다. 강물이 피로 벌겋게 물들었다. 이윽고 반란수괴도 칼에 맞아 쓰러졌다. 그러자 반란수괴의 군사들 모두 두 손을 들고 항복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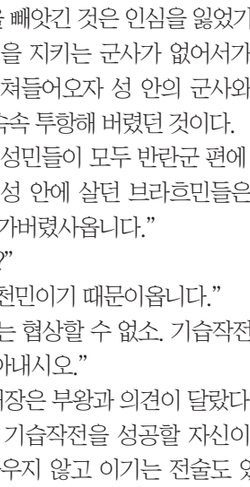
수시마 정예군사는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 반란수괴의 잘린 목이 깃대 끝에 올라가자 정예군사의 사기는 더욱 충천했다. 선봉대장은 즉시 선봉대 정예군사를 이끌고 탁실라성으로 공격해 갔다. 반란수괴의 잘린 목은 선봉대장 참모가 들고 달렸다. 그런데 무혈입성이나 다름없었다. 탁실라성 안에서 저항하는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 죽은 탁실라 왕의 동생들이 마우리아왕국에서 새로운 부왕을 보냈다고 소문내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반란수괴의 목은 또 다시 깃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성민들이 쏟아져 나와 환호했다. 그 자리가 바로 수시마 부왕의 취임식 자리로 바뀌었다. 수시마가 호기 있게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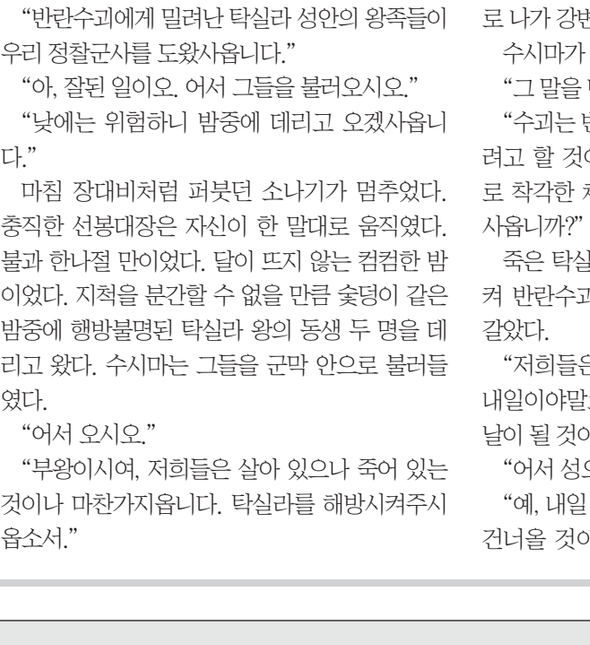
"저 수괴를 우물감옥에 처넣어라!"

성민들이 다시 와아와아! 환호했고, 죽은 탁실라 왕의 동생 두 명은 수시마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 덕분에 무혈입성한 수시마는 꿈꾸듯 감격했다. 〈계속〉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무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⑧ 〈반야심경〉과 선 (上)



▶ 한줄 요약
화 없는 평상심이 바로 '禪'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 '정견'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생사윤회를 해탈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의 마음을 〈금강경〉에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로 말씀하신다. '금강반야'란 우리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이 밝고 단단한 지혜로 온갖 분별망상을 벼락같이 부셔버리는 것이다. 이 다이아몬드 금강 지혜를 〈반야심경〉에서는 '마하반야'라 하는데, 바로 큰 지혜다. 큰 지혜로 생사고해를 건너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핵심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이 〈반야심경〉의 반야 지혜가 바로 禪이다.



중대사자암에서 수행의 일환으로 〈반야심경〉 사경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

〈반야심경〉이란 무엇인가?

〈반야심경〉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약칭한 경전으로 당나라 현장 법사가 649년에 번역했다. 〈반야심경〉은 팔리어본이 없고 산스크리트어본만 있는데, 제목은 '마하 프라즈냐파라미타 흐르다야 수트라(mahā-Prajñāpāramitā-hṛdaya-sūtra)'이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프라즈냐는 지혜, 파라미타는 건너다, 흐르다야는 핵심, 수트라는 경이란 말이다. 큰 지혜로 깨달음으로 가는 핵심의 길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조계종단에서 〈반야심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무슨 까닭인지 제목은 그대로 두었는데, 제목까지 번역한다면 우리에게 훨씬 쉽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야심경〉도 '반야(지혜)'라는 경 이름이 보여주듯이 〈금강경〉과 함께 방대한 대승 반야부 경전 중 하나다. 〈반야심경〉은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자주 독송되는 경전이니만큼 불교 대승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반야심경〉은 사찰에서 조석 예불과 불교의 모든 법회, 행사에서 의식으로 봉독하여 불제자들의 일체감을 만들어 준다. 특히 한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불교계와 합동 법회 시에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는데 말은 달라도 뜻은 하나이니 그런 훌륭한 앙상블도 없다. 인종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언어가 다른 동아시아 불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은 방대한 반야부 경전 600권의 핵심을 표현한 경전으로 한자 260자, 한글 438자로 짧은 경전이나 그 뜻은 매우 심오하여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한자를 병행하면 더 그렇다. 하지만, 〈반야심경〉도 부처님이 깨친 중도로 보면 그 뜻이 쉽게 드러난다.

괴로움서 벗어나는 마하 지혜, 〈반야심경〉

마하 큰 지혜로 생사윤회를 건너가는 요긴한 길을 설한 〈반야심경〉 중에서도 핵심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이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뿐 아니라 불교의 모든 경전 중에서도 가장 요긴한 마하 금강 지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 지혜'와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는 '마하(큰) 지혜'는 같은 뜻이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음을 앞둔 생사의 경계에 서 있어도 이 마하 지혜로 생사의 고통을 단박에 건널 수가 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코로나19 바이러스다. 2021년 4월 19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감염 사망자수가 300만 명을 넘고, 확진환자는 1억 4000만 명이 넘는다. 전염의 위험 때문에 가족도 친구나 도반도 만나기도 어려운 실로 괴로운 시절이다. 이처럼 괴로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상심으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며 여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오온이 다 공'이라는 정견을 세우면 가능하다.

오온(五蘊)은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다. "나는 누구인가?"하고 묻는 이에게 불교의 대답은 '오온'이라 말해 준다. '나'는 색(色)이라는 물질 요소와 수(受)·상(想)·행(行)·식(識)이라는 정신 요소가 연기하여 존재한다. '나'는 살과 뼈 등 물질 요소와 이 물질이 연기하여 느낌과 생각, 의지, 의식이 난다.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가 모두 공(空)하다고 비추어 본다함은 정견(正見)으로 본다는 말이다. 정견으로 보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모두 무아(無我)라고 보는 것이고, 〈반야심경〉에서는 그 무아를 공(空)이라 한 것이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나 죽지 못해 산다는 삶이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나'

인간의 본성 '희로애락'
정견으로 바로 보아야
영원한 대자유를 증득

없음의 공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있다고 한다면, 삶과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더구나 '내가 있다'고 보면 죽은 뒤에도 영혼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불교에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나와 일체 만물을 무아 공으로 보는 정견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기공, 단학, 힐링 명상의 한계

지금 인류 문명이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시대라 '경쟁'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런 시대에 교육에서 경제생활까지 경쟁 아닌 곳이 없다 보니 인간의 삶은 일상화된 경쟁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피폐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횡행하다 보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한 물질적 재산 축적에 마음이 쏠려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도덕관이 마비되고 있다. 부처님의 소욕지족의 지혜와 무소유의 탁발 수행 공동체 삶을 기준하여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구 이상 기후 등 인류 문명의 대위기 속에서도 평상심으로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기 보다는 물질에 열광하는 현실이라니…

이런 물질 중심의 경쟁 사회에서는 정신적 공허감과 우열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수련, 기공, 단학 등과 같은 수련단체나 힐링 명상 프로그램이 각광 받고 있다. 물질 중심의 경쟁 사회에 지친 사람들에게 수련과 명상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돕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수련과 힐링 명상이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길은 '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원히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불교의 마하 지혜가 아니다.

불교의 마하 지혜는 중도, 무아, 공을 정견하고 실천해야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계적인 명상 붐에서도 이러한 불교의 정견에 기반을 둔 명상과 참선 수련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진통제 같이 잠시 잠깐의 위로나 힐링 명상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영원히 멈추는 불교의 마하 지혜로 가야 한다.

짜증과 화가 난다면 참된 불자?

우리 같은 재가 생활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마주 하는 것이 짜증과 화가 아닐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가 나를 오해하여 비난하고 능멸할 때 나는 짜증과 화가 일어난다. 화는 우리를 괴롭히는 탐욕, 어리석음과 함께 세 가지 독 중에 하나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화가 없어야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불자라면 화가 일어날 때 내가 무아 공임을 정견하여 화를 멈추고 온갖 괴로움을 지나가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아 내가 있다고 보고 집착하고 욕망하고 화내고 원망한다면 불교의 길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하 지혜는 바로 이런 욕망과 화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는 참으로 어렵다. '희로애락은 인간 본성인데, 화 분노까지 내지 말라 하니 나는 이런 불교는 안 할래'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희로애락은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본성이다. 유가의 희로애락은 내가 있다는 유아(有我)의 입장에서 생사윤회의 고통 속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마하 지혜는 내가 무아 공이니 희로애락의 감정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머물고 집착할 것이 없는 대자유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로 가려면 나와 희로애락의 감정을 무아 공으로 정견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화

불교의 영원한 모델은 부처님이다. 방대한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부처님이 화를 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처님은 화를 내야 할 대목에서도 화가 아닌 자비심을 내셨다.

수많은 일화가 있지만,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절단' 한 엽기적인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부처님이 전생의 인욕 수행자 시절에 잔악무도한 가리왕을 사냥하던 숲에서 만난다. 왕은 자기 궁녀들이 부처님의 평온한 모습에 감화되어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자 가리왕은 시기 질투가 나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는 누구냐?' '인욕행을 닦는 수행자입니다.' 가리왕은 '인욕 수행을 한다니 얼마나 참는지 한 번 보자' 하며, 부처님의 두 팔을 자르는 악행을 범한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화와 원망하는 마음 없이 여여하였다. 이에 화가 더 난 가리왕은 두 다리까지 절단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이런 희대의 악행에도 부처님은 가리왕에게 원망하거나 화내는 마음이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부처님은 '나'라는 오온을 공으로 보아 내가 있다는 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무아 공의 정견으로 보니 상대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연민하는 마음이 났던 것이다.

부처님처럼 능멸을 받으면서도 화와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평상심이 바로 禪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⑧ 싯달타 태자 이상형 찾기



▶ 한줄요약
어느덧 혼기가 찬 싯달타 태자의 배필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당시 이상형은 '옥녀'였는데,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집장석의 딸인 '구이' 였다. 태자는 구이를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 재주를 겨루는 시합에 나선다.

싯달타 태자 배필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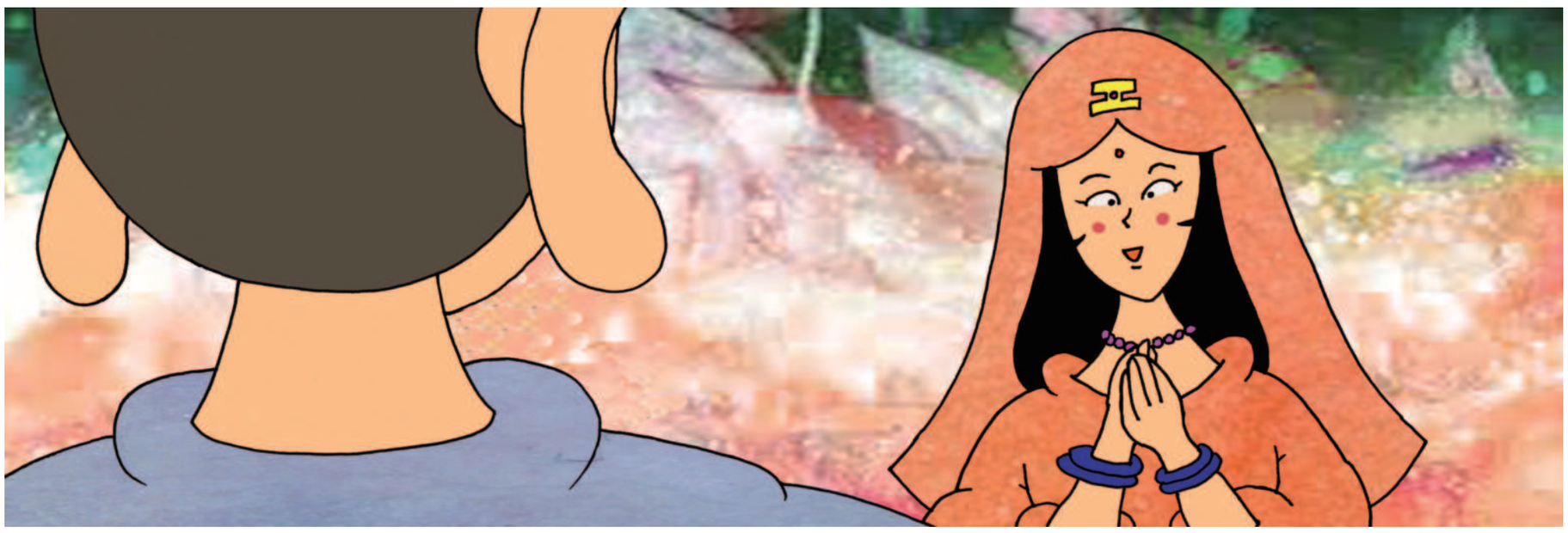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태자의 배우자 구하기

싯달타 태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이상형을 찾는다. 처음에야 아버지 정반왕과 대신들의 뜻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배필을 구하는 실제 작업에 들어가자 자기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한다. 당시의 이상형은 '옥녀(玉女)'의 모습으로 대표되었던 것 같다. 지난 이야기에서도 '옥녀'가 칠보 안에 들어 있어 살펴본 바 있지만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은 어떠할지 당시 사람들의 미인관에 주목해보자. 〈석보상절〉 권3의 내용을 중심으로 〈월인천강지곡〉과 한역 경전들을 참조하여 다양한 프리즘으로 채색되는 씨실과 날실의 직조를 감상해 보기로 한다.

역사(力士)들과 석종장자들이 왕께 사뢰었다.
"태자께서 부처가 되시면 전륜성왕(聖王)의 자손이 그칠 것입니다."
정반왕이 이르셨다.
"어떤 이의 딸이어야 태자의 배필(妃子)이 될 수 있으려뇨."

석종 장자(釋種長者)는 석가족의 어른이다. 이렇게 태자가 가르치는 스승보다 뛰어나고 매사에 비범할수록 정반왕과 신하들은 그가 출가할까 노심초사하며 혼처를 구하게 된다. 그 내용을 담은 월인천강지곡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삼십육장
석종(釋種)이 말씀드리기를, 태자가 출가하시면 자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아버님 정반왕이 이르시기를, 누구의 딸을 골라서 며느리 되게 하리오

태자의 이상형

태자가 금으로 여자의 모습을 만드시고 여자의 덕을 써서 이와 같아야 부인을 삼으리라 하시니 왕이 좌우에 있는 범지(梵志)를 시켜 두루 다니며 얻으라 하셨다.

좌우 범지는 왕의 양쪽에서 왕을 따라 움직이며 보필하는 사람이다. 부처의 협시보살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범지(梵志)는 바라문(brahmana)의 한역으로 범사(梵士)라고도 한다.

무엇보다 태자의 이상형이 궁금하지 않은가. 〈불설보요경〉 권3과 권9에는 태자의 이상형과 구체적인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외모는 자마금(紫磨金)같이 빛나고 마음이 깨끗하여 허공과 같고 조용하되 꼭 알맞은 말만 하며 인자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술이나 맛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탐진치(貪瞋痴)를 벗어나고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어긋나지 않는 품성을 갖추고 생김새는 옥녀(玉女)형이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지가 한 옥녀(玉女)와 같은 이를 만나고 돌아와 사뢰었다.
"집장석의 따님이 계시더이다."
왕이 말씀하셨다.
"만일 태자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 딸을 고르게 하리라."
하시고 나라의 고운 여자를 모두 태자의 강당에 모이게 하셨다.

그 이상형인 옥녀(玉女)와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집장석의 딸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집장석(執杖釋)은 팔리어로는 'Dandapani Sakka'로 의역하면 석가족 사람으로 이름이 집장자(執杖者)이다. 지팡이(Danda)를 짚고 다녀서 붙은 이름이다. 〈불본행집경〉 권13에는 큰 부자로 돈과 비단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구비하였다고 한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구다미(瞿多彌)'라고 하였고, 〈석보상절〉 권3에서는 '구이(俱夷)'로 나온다.

정반왕은 아들 싯달타의 의견보다 범지가 찾은 배필감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지의 의견은 곧 정반왕의 의중에 맞는 사람일 터이고 가문과 왕위를 계승할 자손이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왕실로서는 태자의 아내이기에 앞서 왕실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었음을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講)은 글을 읽어 뜻을 찾는 것이니 강당(講堂)은 글을 강하는 집이다. 협주의 풀이이다. 학당(學堂)이 글 배우는 집이고 강당은 글을 읽고 뜻을 찾는 공부를 하는 집인 것이다.

태자, 이상형 구이를 만나다

그때 집장석의 딸 구이도 강당에 와서 태자를 뚫어지게 보거늘 태자가 웃으시고 보배 수정을 건네주셨다.

구이가 사뢰었다. "나는 보배를 아끼지 아니하고 공덕으로 장엄합니다."

어느덧 혼기 찬 싯달타 태자
심신 완벽한 '옥녀'가 이상형
집장석의 딸인 '구이' 부합돼
태자, 배필 얻기 시합에 나서

'구이(俱夷)'는 'Gopikā'를 음역한 구이(俱夷 · 裘夷) · 구비가(瞿比迦) · 교비(嶠比) · 구파(瞿波 · 瞿婆) 등으로 기록된다. 번역하여 수호지(守護地) · 부장(覆障) · 명녀(明女)라고 한다. 일설에는 야수다라의 별명이라고 하는데 〈석보상절〉 권6에서는 '야수다라'로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이가 태자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서로 첫눈에 반해 배필이 되는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구이의 거칠 것 없는 당당한 태도며 태자에게 대하는 첫 마디로 단박에 태자를 매료시킨다.

일단 싯달타가 태자라고 해서 눈을 피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쌀아 보다' 인데 주목(注目)한다는 뜻이다. 〈석가보〉에는 싯달타 보살을 자세히 보시며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諦視菩薩目未曾眴)고 쓰여 있다. 서로 빨려들 듯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다.

그러자 태자도 마음에 들어 웃으며 자신의 보배인 수정을 꺼내 주며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執持寶英以遺俱夷). 여러 경전에는 정반왕이 미리 준비한 많은 보배를 거기에 모인 처녀들에게 나눠주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수정 보배는 그중에서도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이는 수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보배를 소중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고 그보다는 공덕으로 장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치품으로 나를 꾸미기보다 나의 인품과 행동거지에서 우러나오는 공과 덕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표현이다. '아끼지 않는다'는 〈석가보〉에서 '탐(貪)하다'로 쓰고 있다.

현재에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명품을 사려고 밤새 줄서는 기사가 나오는 세태가 만연한데 그러한 우리에게 한 방 멋지게 날리는 말이 아닌가. 이러한 멋짐과 당당함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태자는 구이야말로 자신의 배필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구이에게 장가들기 위한 한 판 겨루기에 돌입한다. 이상의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삼십칠장
태자가 배필(妃子)의 모습을 금으로 된 상(金像)으로 만들어 부덕(婦德)을 쓰십니다
집장석의 딸이 금상의 모습과 같으셔서 수정을 받으십니다

구이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왕이 범지를 이각시 집에 보내셨다.
집장석이 말하였다. "우리 가문에서는 재주를 겨루고 나서야 사위를 맞습니다."
왕이 태자에게 물으셨다. "재주를 겨루겠느냐."
태자가 대답하였다. "겨루겠습니다."
왕이 북을 쳐서 재주 겨룰 사람을 다 모으라고 하시고 명령하셨다. "재주 겨루기에서 이긴 사람이라야 집장석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갈수록 흥미진진해진다. 싯달타 태자는 구이와 결혼하기 위하여 기꺼이 한판 승부를 하겠다고 한다. 출가하여 붓다가 될 것을 걱정한 아버지 정반왕과 좌우 신하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집장석 가문도 예사롭지 않다. 상대가 그 나라의 왕이고 왕자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훌륭한 사위 선발대회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한다. 왕과 태자가 거기에 호응하여 전국의 쟁쟁한 청년들과 기량을 겨루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묘미를 아는 전개이다. 전국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커다란 강당에 모여 아름다움을 뽐내고 전국의 늠름한 청년들이 기량을 겨루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 스펙터클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당시 정말 이렇게 왕이나 태자도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통해 결혼을 하였을까. 태자의 승리가 예견되는 이야기지만 그 누구나 그리는 공명정대한 이야기 전개에 빠져들게 된다. 태자가 이미 전륜성왕의 재목이요, 그 누구와 겨루어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불본행집경〉권12에는 태자가 놀이에만 빠져 학문과 기예가 없어 집장석이 내 딸을 시집보낼 수 있을까 의심했다는 상반된 내용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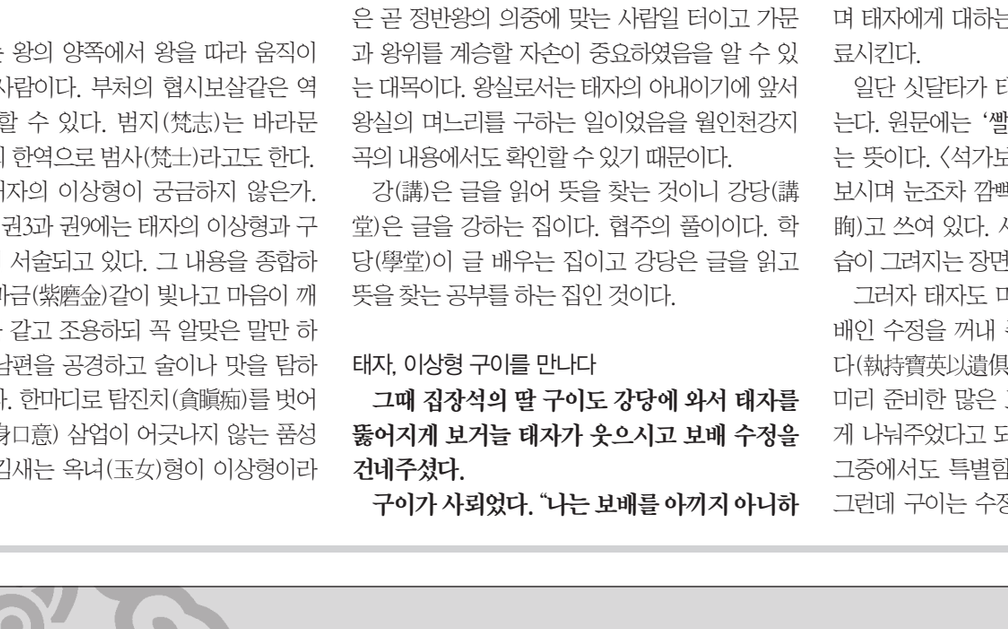
아무튼 이토록 어여쁜 선남선녀의 만남도 유쾌하고 혼사의 과정도 축제처럼 펼쳐지는 이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삼십팔장
집장석이 사위를 고르는데 태자의 재주를 못 믿어 임금의 말을 거스르니
아버님이 태자를 의심하시어 겨루기 여부를 묻고 나라의 사람들을 다 모으시니

다음 이야기는 스케일도 장대한 코끼리 던지기 대회부터, 씨름, 활쏘기 명사수 대회가 이어진다. 우리 모두 타임머신을 타고 카필라국으로 떠나고 싶어질 것이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❺ 독립 후 첫 총리 우 누(U Nu)



▶ 한줄 요약
미얀마 독립 후 초대총리가 된 우 누는 불교집안에서 성장해 손꼽히는 신심을 지닌 불자였다.

미얀마서 현대 전륜성왕 꿈꾸다



미얀마 고승들과 함께한 우누 총리. 그는 남다른 신심에 기반해 불교적 가치관으로 미얀마를 이끌고자 했다.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우누 총리.

한국과 비슷한 현대사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다면 천불천탑의 신비를 가진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식민지시기, 쿠데타, 민주화운동과 같이 비슷한 아픔을 우리나라처럼 겪었다. 미얀마는 1962년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 군사정권이 시작된 이후 2015년까지 오랜 시간동안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2015년 11월 8일에 치뤄진 총선거 이후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화의 발전을 시작했다고 미얀마 국민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2020년 11월 8일에 총선거에서도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NLD가 군부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민주정부 2기 출범을 꿈꿨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미얀마에는 너무 잔인하게도 쿠데타의 발생이 약 5년만에 재발생했다. 이번 쿠데타는 더 잔인하고 무식한 변명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명분으로, 미얀마 군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및 우윈민 대통령을 포함하여 장관들과 NLD 국회의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구금했다. 쿠데타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나간 현재 약 700여 명이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사살되었다고 보도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1000여 명이 사망하며 '피의 미얀마' 로 얼룩지고 있다. 미얀마 현대사의 공식적인 두 번째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쿠데타가 네윈 장군에 의해 발생되기 이 전까지 독립이후 미얀마를 이끌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

미얀마 독립 이후 첫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미얀마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아웅산 장군' 아니야? 라고 많이들 묻는다.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었지만 불운하게도 독립이 되기 6개월 전에 총에 맞아 사망했다. 독립이 된 후 미얀마의 초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우 누였다. 이 당시 미얀마의 양곤대학교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대학교 지위를 누렸고, 미얀마의 수재들은 모두 양곤대학교로 모였다. 인도와 동남, 동북아시아를 이어주는 육로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도 초창기 발전 목표가 '버마(미얀마의 예전 이름)처럼 잘 사는 것' 이었다.

우 누는 전반적으로 불심이 깊은 미얀마에서도 정말 불심이 깊은 불교 집안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는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서 경전 독송과 명상을 매일 같이 하며 청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버마인' 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다. '버마인' 이라는 자부심 안에는 불교가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불교의 사상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영국의 식민지 시기를 거친 후 발생한 소수 민족과 여러 계층들의 갈등도 불교적인 가치관을 통해 해결되길 바라며, 과거의 역사 속 미얀마 왕들이 자신의 공덕과 백성들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면서 파고다를 건립했던 것과 같이 파고다 불사를 많이 했다.

그는 사회주의와 불교가 사상적으로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불교적 가치관에서 사회주의를 포용한 '불교사회주의' 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경제사상에 불교적 가치관을 도입하여 '불교경제' 사상을 창시했다. 예를 들면,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소비보다 만족을 더 큰 가치로 두는 것이다. 슈마허(E. F. 슈마허,1911~1978) 경제학자는 우 누의 경제 자문역이었는데 미얀마에 와서 소득 수준은 엄청 높지 않지만 행복하게 사는 미얀마 국민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쓴 책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이다.

불교사회주의를 주장한 그는 '민주주의' 또한 불교의 가치관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불교사회주의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에게 '사회주의' '민주주의' 는 '불교' 라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현대적인 이론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장한 이론을 통해 결국에는 국민들 모두가 불국토에 사는 것을 꿈꿨다. 유달리 그가 '불자(佛者)' 여서 불교적인 가치관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의 형태는 과거의 바간 시대부터 마지막 미얀마 왕조까지 '전륜성왕' 이 되기 위한 미얀마 정치 전통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현대적으로 승화한 것이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당시의 정치 형태를 반영하며 발전과 쇠퇴를 되풀이

불교적 가치로 국가 통치
스스로 신심 깊은 수행자
불교 민주주의 확대 노력
네윈의 쿠데타로 축출 돼
'전륜성왕' 같은 리더 필요



우 누가 총리로 활동할 당시의 모습.

했다. "왕이 훌륭한 지도자인가?"하는 것은 왕의 불심(佛心)에 따라 판단되는 것과 같이 불교는 지배자의 자질을 묻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불심은 지배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었다.

하지만 현대는 과거의 상황과 같지 않아 예전의 미얀마 왕들처럼 그의 통치법이 현대적으로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얀마의 전통적인 정치적인 역사흐름을 살펴보면 미얀마 사람으로서는 매우 당연한 선택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선거' 라는 현대적인 장치의 산물로 선출되었지만 사실상 불교에서 백성들의 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선출된 마하삼마타(Mahāsammata)이자 전지전능한 전륜성왕으로 대중에게 각인되기를 원했다. 전륜성왕으로 칭송받는 아쇼까왕이 제3차 경전결집대회를 개최한 것처럼 그는 부처 탄생 25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불교도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스님들과 불교학자를 미얀마로 불렀다. 그가 세계 불교도 대회를 개최한 궁극적인 이유도 전륜성왕이 되기 위한 과거의 왕들의 행적을 현대적으로 답습한 것이다.

그의 '불교사회주의' '불교경제' 는 불교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또 다른 사상들을 포용하려고 했던 새로운 시도였다. 전륜성왕이 되기 위한 그의 마음은 컸지만, 그가 꿈꾸던 것만 큼 미얀마에서 불국토를 건설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1962년 네윈의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었다. 과거 바간의 아노야타가 사회를 재정립하고자 불교를 통해 통합된 바간 왕조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도 식민지시절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불교를 중심으로 재통합하려 했다. 그는 1961년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지만, 그 다음해에 네윈에 의해 불교 국교화는 폐지되었다.

전륜성왕의 의무에는 법의 현실적 실현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국민을 위험의 순간으로부터 보호하며, 악행이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가난한 자에겐 재화를 나눠주고, 천륜(天輪)이 가는 대로 법을 전하는 것이다.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이상국가는 법에 의해 국민들이 안정된 질서 속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물질적 빈곤감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즉, 인간의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륜성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재화의 평등분배를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우 누가 주장한 사상을 살펴보면 전륜성왕의 조건과 일치한다.

선(善)이 악(惡)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륜성왕을 꿈꾸던 우 누는 무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네윈에 의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불교적 가치인 자비와 비폭력을 기반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끈 아웅산 수지도 결국 총과 무기를 든 민아웅흘라잉의 또 한 번의 쿠데타로 인해 감금되었다. 미얀마의 불운한 쿠데타의 역사가 '전륜성왕' 을 꿈꾸고 불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통해 미얀마의 부국강병과 발전을 꿈꾼 우누의 원력이 미얀마 현대 정치에 되살아 나길 바란다.

〈양곤대 박사과정〉



탑으로 솟아 〈법화경〉 증명하는 '다보여래'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⑯ 다보여래와 법화경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의 탑이 나타났다.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로×세로가 250유순이나 되는 탑이 땅에서 솟아 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었으며 5000의 난간과 1000만의 감실이 있고 수없는 깃대와 깃발로 꾸며져 있었다. 그때 보탑 안에서 큰 소리가 울려 나와 찬탄하였다.

"훌륭하고도 훌륭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께서 호념하시는 법화의 가르침을 대중을 위해 설하시나니, 말씀 그대로고 말씀 그대로이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하나이다."

사부대중은 큰 보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며, 또 탑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다 법희(法喜)를 얻었으며, 전에 없던 일이라 특이하게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서 있었다.

대요설(大樂說)보살이 천인, 인간, 아수라들이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무슨 인연으로 이 보탑이 땅에서 솟아 나왔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이 탑 안에 여래의 전신(全身)이 있느니라. 그 옛날 동방의 한량없는 1000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한 나라가 있었으니 보정(寶淨)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다보(多寶)였느니라. 그 부처님 보살도를 닦으실 때 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만약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뒤에 시방국토 그 어디든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곳 있으면, 나의 탑이 이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와 증명을 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리라' 고 하셨느니라. 그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멸도하실 때에 천상과 인간 세상, 사람 모인 가운데서 비구들에 이르셨다.

'내가 멸도 후에 나의 전신에 공양하려 하는 이는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세우라' 고 하셨느니라. 그 부처님 신통과 원력으로써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만약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저 보탑이 꼭 그 앞에 솟아나고 부처님의 전신이 탑 안에 계셔서,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라고 찬탄하시리니 대요설이여, 지금도 다보여래의 탑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 땅으로부터 솟아나 찬탄해 이르시되,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고 하신 것이니라."

땅에서 탑이 솟아 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견보탑품〉의 이 대목은 다보여래와 〈법화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원래 다보여래는 동방 보정(寶淨) 세계의 교주이시다. 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땅에서 탑으로 솟아나와 그 탑 속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찬탄하고 경전의 법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탑이 바로 다보탑이다. 우리나라 불국사에 있는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이 다보여래의 원력을 상징하는 탑으로 〈법화경〉을 찬탄하고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보탑은 부처님 전신사리를 모시는 탑이다. 다보여래의 본원력으로 열반에 든 후 전신사리가 되어 여러 부처님들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마다 반드시 탑으로 땅에서 솟아나와 〈법화경〉이 진실 법문임을 증명해 준다.

이 대목의 이야기는 또 사리신앙과 관계가 있다. 사리는 범어 sarira의 음사된 말로 본래의 뜻은 유골(遺骨) 혹은 영골(靈骨)이라는 뜻이지만 매우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보석처럼 생긴 결정체를 말한다. 다비(茶毘)를 하여 수습되는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팔곡사두(八斛四斗) 곧 여덟 섬 네 말의 사리가 나왔다는 설이 있다. 이를 여덟 등분으로 나누어 모셨다는 것이다. 〈금광명경〉 '사신품' 에는 "사리란 계(戒)·정(定)·혜(慧)를 훈습하여 닦은 결정체이니 매우 얻기 어려운 것으로 최상의 복전(福田)이 되는 것이다."하였다. 사리를 모시기 위하여 탑을 세우는 풍습이 불교가 전해진 나라마다 생겼다. 인도의 아쇼카왕이 수많은 사리탑을 세웠으며 우리나라는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모시고와 황룡사 탑과 통도사 계단 등에 나누어 봉안했다. 불상을 향해 예불하는 풍습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사리탑을 향해 예불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十善行, 마음속에 선한 의지 있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⑯ 십선계

대승불교의 보살은 본생(本生) 보살이나 수기(授記) 보살처럼 특정한 보살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보살' 이다. 누구라도 보리심으로 서원을 세워서 끊임없이 정진해나간다면 '보살' 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이 되는 데는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아무런 제약이 없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으므로 대승 보살의 행위 규범은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승계 또는 보살계에는 이전의 칠중계와 달리 보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승불교도들은 이전에 경시되었던 십선(十善), 즉 열 가지 선한 행위에 주목하게 된다. 십선은 초기 불교경전인 〈아함경〉에 설해진 불교의 중요한 실천덕목이지만, 초기불교에서는 계(戒)로 불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십선은 오계(五戒)와 함께 재가자가 지켜야 하는 계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 십선업도(十善業道) 또는 십선도(十善道)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한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히라카와 아키라(平川 彰)는 대승불교의 본래 계는 십선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초기 대승불교의 보살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십선계가 중심이었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는 계에 대한 인식이 악행을 금지하는 것에서 선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변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초기 대승경전에 설해진 십선업도는 선인선과(善因善果)에 근거해서 10가지 선행을 실천덕목으로 규정한 것이다. 육체적 행위[身業]는 세 가지로,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릇된 음행(淫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언어적 행위[口業]는 네 가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험담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의지적 행위[意業]는 세 가지로, 탐욕스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악인악과(惡因惡果)에 근거한 십악업도(十惡業道)이다.

십선업도는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에서 대승계로 인식되면서 십선계로 불리게 된다. 〈반야경〉에서는 시라바라밀(尸羅波羅蜜), 즉 계바라밀(戒波羅蜜)을 "보살은 살바야(薩婆若)에 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십선도를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십선도를 행하게 한다"라고 설한다. 또 〈화엄경〉과 〈유마경〉 등에서도 보살이 실천해야 할 계바라밀을 십선도라고 설한다. 따라서 초기 대승불교에서 계로 대표되는 것은 십선도, 즉 십선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승 보살은 살생, 도둑질, 그릇된 음행, 거짓말, 꾸미는 말, 험담, 이간질, 탐욕, 성냄, 그릇된 견해를 가짐 등의 열 가지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살이 10가지 선행을 끊임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선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만약 마음속에 악한 의지가 있다면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는 선행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보살은 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만족한 마음, 진실한 마음,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부드러운 말을 하려는 마음, 화합을 도모하려는 마음, 늘 나누려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승적 의미에서 십선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누구나 보살이 되어 선한 마음가짐으로 열 가지 선행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⑯ 고대 인도의 성곽 도시

경전 속 '城' 형태는 방어도시?

경전의 묘사에 따르면 석가모니와 그의 제자들은 탁발을 위해 때때로 도시의 성으로 들어갔다. 이 때 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일까. 당시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특정한 읍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출입구는 일정하게 통제되고 있었다는 말이며, 주거지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의 높이와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었던 것일까. 경전에서 묘사된 도시는 정말 성곽도시였으며, 그렇다면 석가모니 당시에 방어용 도시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정확히 대답해줄 수 있는 문헌학적이며 고고학적인 단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기원전 6세기에서 3세기경쯤 이미 중요한 갠지스 강변의 도시들은 성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성벽은 평균적으로 두께가 3미터가 넘고 있었는데 대부분 진흙을 이용한 벽이었다. 어떤 도시는 진흙을 다지거나 그 위에 다시 구운 진흙벽돌을 쌓아올려서 성벽을 형성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도시는 그러한 흙벽의 위쪽과 바깥쪽으로 다시 돌을 쌓아 흙벽 전체를 덮어 외부 마감을 단단하게 구축한 경우도 있었다. 안쪽은 흙벽이고 바깥은 돌로 쌓은 경우다.

마투라(Mathura)처럼 강(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 도시의 경우는 강을 배수진으로 삼고 나머지 면을 성곽이 둘러싸고 있으며, 산의 능선을 이용해 방호벽을 구축한 경우도 있다. 바다미(Badami)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보듯이, 도시국가의 중심부는 때때로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된다. 불경 속의 대표적인 도시 라자그리하(Rājagṛha 왕사성)도 그러한 곳이다. 라자그리하는 붓다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로 석가모니는 이곳을 빈번히 방문하여 설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불교사원지 죽림정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불멸후 1차 결집이 이루어진 장소도 이 도시에 있으며 〈법화경〉의 설법지로 부르는 영축산(靈鷲山)도 이곳의 명성에 의탁해 있다. 많은 불교신자와 자이나교 순례자를 부르는 이 도시는 고대 수도로서의 명망에 걸맞게 여러 종교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그려진다.

이 도시가 언제 형성되었는가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시의 둘레는, 당시의 명성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꽤나 큰 규모를 보여준다. 마가다국의 수도 경계를 말해주는 성곽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라자그리하의 도시가 놓인 지형을 보자. 특이하게 라자그리하는 두 겹의 긴 산 능선 사이에 놓여있다. 이 수평으로 놓인 두 겹의 자연적인 산맥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연적인 방호기능을 갖추고 있다. 흔히 우리가 '올드 라자그리하' 라고 부르는 옛 수도지역은 이 산맥 사이에 놓이고, '뉴라자그리하' 라고 부르는 그 후의 수도지역은 두 겹의 산맥 사이가 아니라 두 겹의 능선 너머 북쪽 끝에 놓이게 된다. 능선을 넘어 남쪽에 있는 올드 라자그리하는 자연스럽게 분지의 형태를 갖추면서 그를 둘러싼 산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

이 성벽은 1차적인 수도의 경계를 이루게 되는데, 산성은 대략 300m 고지 위에 돌을 이용해 쌓았다. 두 겹의 산을 감싸는 형태로 산성을 쌓았는데, 규암 등의 편석을 이용한 3~4m 높이의 산성 흔적이 남아있다. 이 라자그리하의 외부 산성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영역 안쪽의 산허리에는 크고 작은 자이나교와 불교의 사원과 유적들이 산재한다. 이 산성이 언제 축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산성이 감싸고 있는 산 아래의 계곡에 다시 올드 라자그리하의 내부 성곽이 존재한다. 이 내부 성곽의 둘레길이는 대략 5km 이내로 추정되는데 대략 마우리아왕조 전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 내부 성곽이 석가모니 시대에 존재했다면 빔비사라왕이 아들에 의해 유폐된 감옥은 성곽 내의 남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이 도시의 중심으로 이르는 길은 남북을 관통하는 길과 서쪽의 옛 길이 있다. 다른 도시에서 들어올 때는 서쪽의 옛 길을 택했을 것이고, 도시 외곽의 산자락에서 읍성 중심으로 진입하는 길은 남쪽과 북쪽의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석가모니도 필시 이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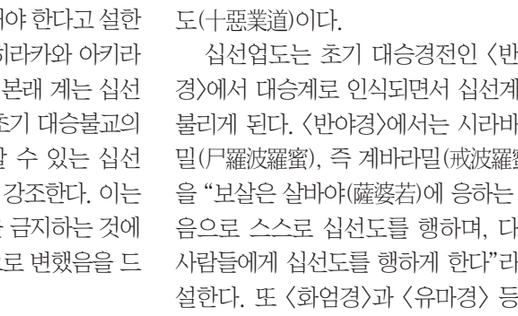
• 사찰명 : 보현사
• 주 지 : 법정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7번길 42-35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한국불교 중앙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8호 | 17 | 전면광고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굴러
떨어뜨리듯이 욕망이 일어나면 잠시라도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언제나 사색과 명상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본생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초빙 동참 안내
지역에 법인지사 설치시 법인 주지사 임명
지역에 사암 등록시 주지 임명
수행승 자격·신분증 부여
세무서 법인번호 등록, 법원 등기 관 등록
불교문화법인
대표법사장 법광 종법주
서울시 노원우제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사주·구성학·명리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주(구성학 · 명리)
1대1 강의 단기완성
포교당 스님 ·
찻집·카페하실 보살님 !
대전 010-5257-9731스님

명 상 쉼 터
30,000여평의 수려한 계곡 자연경관, 심산의 질 좋은 식수, 공기, 황토방 생활, 명상과 건강관리를 우선시하여 지내실 몇몇분을 기다립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802-7102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모십니다.
숙식제공
010-5049-1533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특수 기도
스님에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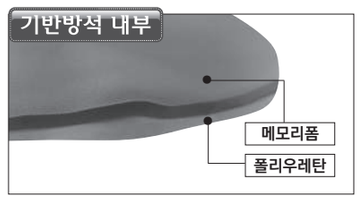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8호 | 18 | 전면광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여도
사실은 부유하다. 이를 가리켜
지족(知足)이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3억

◎위치 : 경북
◎대지 : 150평
◎건평 : 80평
◎시내, 생활편리
◎매가 : 7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합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 가액 : 1억

010-4156-3779

오래된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종교용지 등기 912평(약 1천평)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기와 단청, 공원같이 아름다운 곳
- 은행 1억5천 안고 2억5천만 합 4억
-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지역
- 법회 보고 상담하기 제일 좋은 암자
- 빌라 반지하 몽땅 8천7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1-433-8130

토굴 · 토지 구함

- 정업수행을 하는 비구승 입니다.
-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토굴이나 토굴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합니다.

010-7678-5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 부지 : 530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 1평
- 가액 : 2억(절충)

010-9656-0108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앞
- 규모 : 대지 264.5㎡ (80평), 연면적 762.99㎡ (231평) 제2종지역, 대리석 건물, 점포 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주인세대 : 156.05㎡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 거실, 건물수리 완료
- 3층 포교원 : 156.05㎡ (47평) 최신 불단 조성, 종무소큰방, 스님 방, 실내 남녀 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양도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상가수입, 주차장 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우암산 전망 최고), 주변 대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생활편리.
- 급매가격 : 7억 5천 만원 * 금융융자 3억 5천 만원, 상가보증금 5천 만원

연락처 010-9011-7230 (중개 가능함)

전원주택 안내

(암자도 가능)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1길 52-1
- 대지 191평, 전원주택 30평
- 황토방 5평, 창고 10평
- 태양광, 마당주차 5대
- 가액 2억 7천만원

010-3882-289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 한옥마을 인근 완산칠봉 이성계 기도터 ● 1000평, 요사체, 극락전 신축, 석불 1억5천 시설 ● 전주시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부귀발복터 ● 가액 2억(대출금 3억5천 별도)
- 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 청자박물관 감불산 ● 5만평, 천혜의 자연계곡, 폭포, 암반, 금강송 둘레 1m50cm이상 100년송 수만그루 ● 풍수대명당 부귀발복터 ● 가액 3억5천만원

010-9647-0723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5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36평 2동 8평 2동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전국 사찰, 또는 암자에서 재 건축및 재 개발에 포함되어 보상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스님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 종단 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 불교 조계종

총괄사업 본부장 현광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
02-2198-5022~4 , 010-6209-5099
※ 수 많은 스팸 전화로 인해 전화를 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문자로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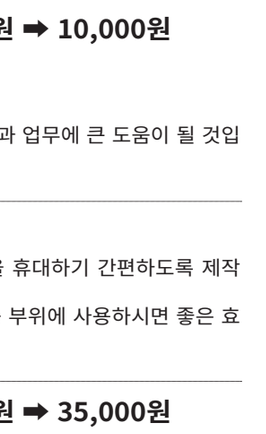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환기

환기가 답이에요. 자신의 마음에도, 인간관계에서도 환기가 답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탁하고 안 좋으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 조용히 걷거나 어디로든 가 보세요.

또, 인간관계에서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 잠시 답답한 관계에서 멀어져 보세요. 선의의 변명을 하고 만남을 자제해보세요. 그렇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가 되면 다시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정기적인 모임도 가끔 쉬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좋지만 너무 자주 만나면 갈등이 생겨요. 모임도 방도 환기가 필요해요. 물도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탁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도 물도 움직여야 좋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흘러야 해요. 그래야 물도 사람도 신선해져요. 탁한 공기, 탁한 관계, 탁한 마음을 환기시켜 주세요. 공기도 관계도 마음도 환기만 시켜 주면 되요. 관계도 마음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당한 때에 환기시키면 저절로 해결이 되요. 실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것은 '환기' 에요.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요. 이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⑧ 고차수 봉황단총

한모금 향기로 몸 속 세포 춤추게 해

바다에서 놀던 연어가 산란기에 고향강을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고향강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아시나요. 바로 향기입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맡은 강물과 수초와 자갈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 냄새를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각인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 머릿속에 향기를 관장하는 뇌는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에 얽힌 기억과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소환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에는 어떤 기억과 감정이 소환되나요? 일기일회, 오직 이 한순간만을 사는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차를 마시는 이 순간에 집중해 봅니다. 차의 향기와 더불어 좋은 생각 행복한 감정을 스스로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각인되어 어느 날 부터인가는 차의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쉬어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라는 학명을 가진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차나무 찻잎이 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녹차도 되고 홍차도 되고 보이차도 됩니다. 찻잎으로 만든 모든 차 중에 '차의 향기에 가장 집중한 차' 가 우롱차이고, 그 중에서도 '봉황단총' 이 단연 최고입니다. 차의 향기로 한 모금만 머금어도 몸속의 세포들을 춤추게 만드는 차, 그것이 바로 봉황단총입니다.

봉황단총(鳳凰單叢)은 광둥성 봉황산에서 납니다. 봉황산은 화산이 폭발하여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산 정상에 움푹이

광둥성 봉황산 단일 고차수로 '향기'에 집중한 茶중 단연최고 당일 채엽·제다방식 전통으로



고차수 봉황단총.

분화구가 있습니다. 천지처럼 크고 깊은 호수가 마치 봉황의 둥지 같다고 해서 봉황산이라고 부릅니다. 봉황산에 차나무가 재배된 역사는 송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송 남송의 교체기에 송왕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봉황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중에서 목이 말라 입이 빠짝 타들어갔습니다. 산사람들이 왕에게 차를 드렸습니다. 왕이 한 모금 마시자마자 갈증이 바로 해소되고 입 안에 단침이 가득 솟았습니다. 과연 이 새의 부리를 닮은 찻잎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감미롭단 말이냐, 왕은 칭송을 하며 '송차(宋茶)'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봉황산에는 송나라 때부터 내려온 차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송종(宋種)이라고 부릅니다.

단총은 한 나무에서 나는 찻잎으로 만든 차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때에는 봉황산에 2만여 그루의 차나무가 번성했는데 차농들이 차나무의 품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차의 품질이 뛰어난 차나무만을 선별하여 따로 심고, 한 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봉황산에서 나는 좋은 차를 봉황단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산은 높고 운무는 앞을 가리네. 연달아 맑은 날이 3일을 못 넘기고, 평평한 땅이 백 걸음을 못 채우네" 봉황산은 산이 높아 해가 비추는 시간이 짧고 일교차가 크고 운무와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겨울이 일찍 오고 여름도 혹서의 무더위는 없습니다. 봉황산은 평지에서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흙의 성질이 바뀝니다. 평지의 차밭은 전답토, 산기슭은 적홍토, 높은 산은 황토와 홍토입니다. 산 정상에 가까울수록 더욱 비옥하고 토심이 깊으며 유기물과 미량원소가 풍부합니다. 봉황산의 떼루아는 찻잎에 폴리페놀과 방향물질이 풍부해지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오늘날 봉황단총은 전답토의 평지 차밭은 차나무가 3년이 되면 찻잎을 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봉황산 정상의 황토와 홍토에서 자라는 고차수는 다 합해야 3000여 그루 밖에 없습니다. 수령이 적어도 100년에서 수 백 년 이상 된 차나무를 고차수(古茶樹)라고 하는데, 고차수로 만든 봉황단총은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고차수 봉황단총은 수 백 년 된 고차수 한 그루의 찻잎으로 당일 채엽 당일 제다의 전통 수공 방식으로 6차례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고차수 봉황단총은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독특한 맛과 기운 산운(山韻)이 뛰어나서 매끄럽고 상쾌하고 차를 마시고 난 뒤에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봉황단총의 분류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향기가 가장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향기로 분류하는 방법이 보편적입니다. 밀란향, 야래향, 통천향, 황치향, 지란향, 계화향, 옥란향, 육계향, 행인향, 유화향, 압시향 등이 있습니다.

봉황단총 밀란향(蜜蘭香)은 꿀 밀, 난꽃 란을 써서 밀란향입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난향이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난향뿐 아니라 깊은 산 맑은 이슬에 담긴 온갖 꽃향기가 차 한 모금에 실크처럼 우아하고 화려하게 피어오릅니다.

봉황단총 야래향(夜來香)은 밤 야, 올 래를 써서 야래향입니다. 밤에 더욱 깊어지는 향기라는 뜻이지요. 차를 마시다보면 깊은 밤 홀로 마실 때 차의 향기가 가장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농익은 열대과일 향이 길게 여운을 남깁니다.

봉황단총 통천향(通天香)은 통할 통, 하늘 천을 써서 통천향입니다. 하늘에 통하는 향기라는 것이지요. 차의 향기가 얼마나 진실하면 하늘에 닿을까요. 보름달을 머금은 듯 매끄럽고 풍요로운 향기와 단전에서 천문까지 퍼지며 올라오는 산기운이 과연 명차 중의 명차입니다.

차 중에는 조용히 음미해야 향을 내어주는 차가 있고 언제나 향기에 취하게 만드는 차도 있습니다. 고차수 봉황단총은 언제 어디서 누가 마셔도, 달고 상쾌하고 감미롭고 섬세하고 화려함에 감탄하는 차, 산기운이 끝이 없는 차, 그래서 한 모금만 머금어도 한껏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선의 차입니다.

〈잇다it茶 대표〉

Go! Inside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 인사이드

마음을 바꾸는 시간 Go! inside 첫번째 강연

코로나가 던진 화두
박으로 나갈 수 없다면,
마음으로 들어가라

BTN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2021. 5. 1 (토)
14:00 ~ 16:00


박문호 박사 / 뇌과학자

1번째 연사
코로나 시대,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2021. 5. 1(토) 14:00 - 15:00
과학이 밝혀낸 코로나 시대의 본질과
과학을 통해 들여다 본 마음의 본질


원제스님 김천 수도암

2번째 연사
질문하는 삶,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나?
2021. 5. 1(토) 15:00 - 16:00
간화선 수행자가 던지는 일상의 화두 찾기와
흔들리는 마음 다스리는 방법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NOTICE
· Go! Inside 강연 참가는 BTN불교TV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접수를 한후 행사 당일 개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줌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o! Inside 강연은 유료강연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불교TV 홈페이지(www.btn.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우울에서 벗어나는 법

▶ 한줄 요약
우울 극복하려면 현재 일어난 일에 집중해야

과거·미래 생각 버리면 현재 행복 온다



우울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먼저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 속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세 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몸, 마음, 마음이 가 있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지만, 자세히 보면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대상에 가 있습니다. 대상에 가 있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없는 몸도 없기 때문에 대상 없는 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잘 알려면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항상 지켜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울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우울한 대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은 유익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탐진치가 없는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난 일에 집중하면 유익한 마음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일어납니다. 우울은 해로운 마음부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면 우울에서 회복됩니다.

유익한 마음상태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해 유익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울증 치유가 시작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양치할 때는 양치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과거의 생각이 일어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고 받아들이고, 미래의 생각이 일어나면 '미래는 모른다' 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닦는 데 집중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또 다른 팁으로는,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행동하려면 자연스럽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면 지혜와 마음의 힘이 생겨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장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인관계 역시 좋아질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반대는 생각하기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향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무것도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울도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에서 깨어나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과거와 미래로 향하면 '꿈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재빨리 알아차리고, 꿈에서 깨어 현재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데 익숙합니다. 늘 깨어 있는 데 익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상도 정신건강을 지키고 우울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현재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의 대상은 호흡이 될 수도 있고, 걷는 동작이나 지금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호흡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코끝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혹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봐도 좋습니다. 길을 걸으며 발을 들고 내딛는 동작을 지켜보는 것도, 설거지를 할 때 손이 움직이고 손에 물이 닿는 느낌을 느껴 보는 것도 다 명상일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평소 이렇게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아주 힘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우울증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서 살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럴 때 우울증 약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정신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높여주는 약을 쓰면 상태가 호전됩니다. 약이 잘 듣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제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을 써야 합니다. 약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도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울한 대상에 쏠린 마음
현재에 집중하며 되 찾아
양치할 때는 양치에 집중
현재 집중, 지혜 힘 생겨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면 다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것이 변해야 지금 상태를 벗어나고 다시는 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가 이뤄집니다. 약을 먹더라도 올바른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노력의 결과로 상태가 나아지면 그만큼 약을 줄일 수 있고, 약을 줄이더라도 좋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해서 상태가 충분히 좋아지면, 그때는 약을 먹지 않고도 올바른 노력의 힘만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도 올바른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 삶에 놀라울 만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것도 자신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개는 상태가 좋아지면 더 이상 올바른 노력을 하지 않고,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 TV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나왔는데 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근육량도 많고 힘도 아주 셌습니다. 진행자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했냐고 묻자 그 사람이 말하길, 자기는 40대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좋아질 거란 말을 듣고서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편안한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편안한 상태에 도달해서도 계속해서 올바른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남들이 놀랄 만한 대단한 정신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울증약뿐만 아니라 정신과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약을 먹고 상태가 좋을 때는 약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잠이 안 올 때마다 수면제를 먹는 것을 들 수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수십 알 씩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쓸 때는 일주일 정도 상태를 지켜보면서 안 좋은 상태가 매일 지속되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올바른 노력을 병행하여 상태가 호전되면 평소에는 안 좋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한 번씩 안 좋으면 그때만 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은 올바른 노력을 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우울은 정신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것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 결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우울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자살 위험성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자살 위험성이 클 때는 정신과에 입원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지속되어 죽지 않고서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죽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입원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또 환경에 변화를 주면 여러가지 조건이 바뀌어서 죽고 싶은 마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순간마다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정된 조건이란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결과가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결과 역시 변합니다. 결코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건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적 관점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치료자가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변화시킬 방법을 환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치료자가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을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끝으로 우울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가능하면 본인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상황, 그가 느끼는 힘듦을 같이 느껴 보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것은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우울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가 어떤 상태인지 경험해 보지 않고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상황에 맞지 않은 방법을 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실망하게 되고 더욱 길을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싫어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에게까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같이 있는 사람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함께 있어 주면서 우울한 사람을 관찰한 뒤에 명백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울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직접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우울한 사람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공부하는 사람들은 옆눈을 팔지 마라!

몸뚱이에 대한 착 놓는다는 게…

질문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생사에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는데 몸뚱이에 대한 착을 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우매한 중생에게 마음의 고삐 다잡을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하여 주십시오.

답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 그러실 때는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는 전부, 나도 아라한이니라. 서로 도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자체가 무생실참 도리로서 들어가면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겉으로 끄달리질 않고 이 몸이 지금 죽든 이따가 죽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마 다르다고 할 겁니다. 계율이 수백 가지라도 계율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사람이 내 몸을 사리지 않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굶는다, 먹는다, 입는다 이런 거, 누가 뭐란다, 누가 나쁘게 생각한다, 누가 욕을 한다 이런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던졌는데…. 이 몸을 던지느냐 이 몸을 안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 몸 하나 던지지 못하니 욕심도 생기고 걸리기도 하고, 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망상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내 몸 하나 딱 버렸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봐도 좋은 게 없고 언짢은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남이 웃으면 여여하게 웃고 남이 울면 여여하게 울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면 아주 여여할 겁니다. 편리하시구요. 내 몸을 살리려고 사린다면 모든 게 다 붙습니다. 일거일동 다 붙습니다. 하나 버리면 다 없는 것을, 하나를 중하게 생각을 하는 까닭에 전부 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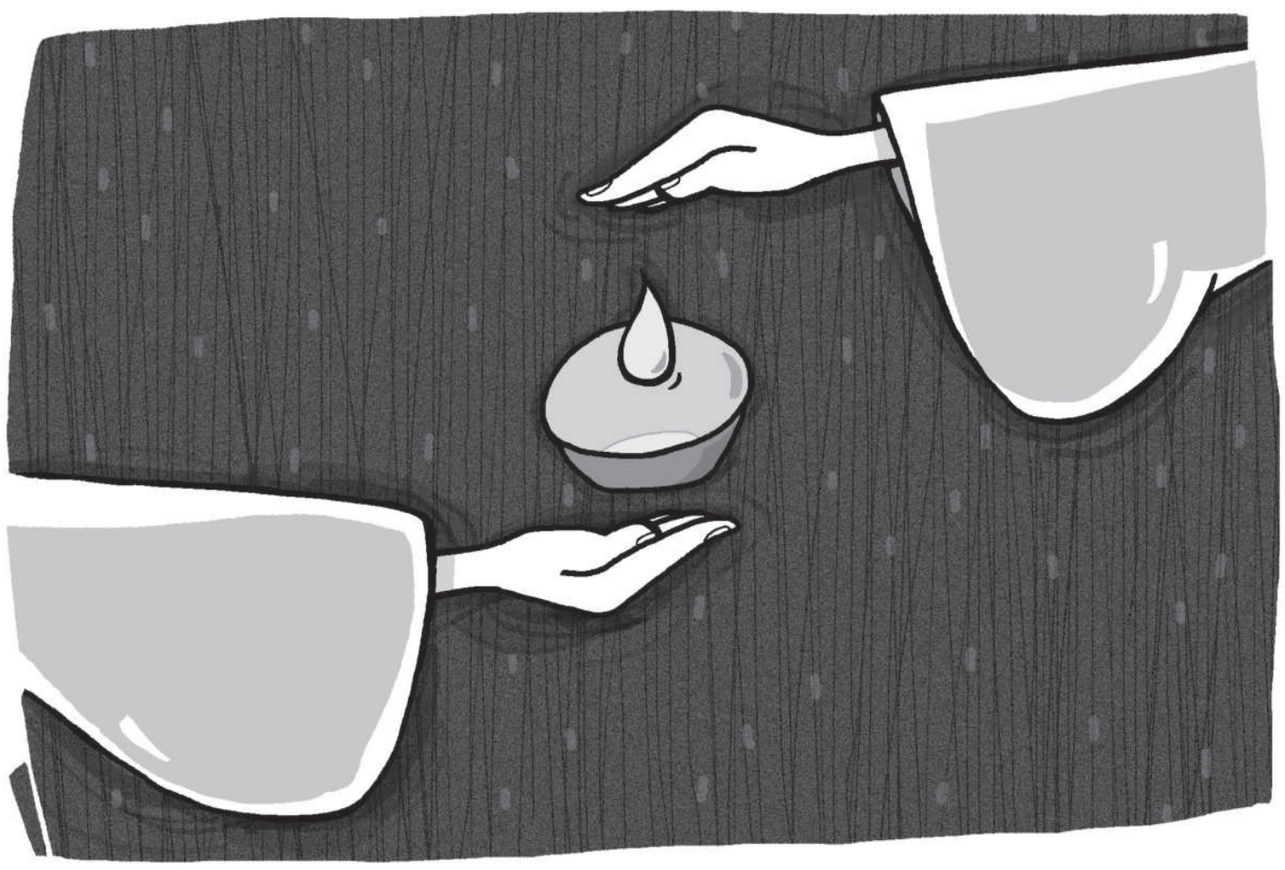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윤회와 재생에 대해

질문 죽으면 끊임없이 사람으로나 축생으로나 자기 살아온 업대로 재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벌써 이미 다시 옷을 바꿔 입고 어딘가에서 재생을 반복하셨을 텐데 이 후손들은 조상님들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슬하에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타파가 되도록 아들의 제사를 지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좋은 데로 태어나서 사는데, 꼭 어느 날짜만 되면은 꿈에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어느 집으로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오는데, 그 집에는 하얗게 머리가 센 노파가 앉아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셨기에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너를 낳아 주신 전생에서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꿈에 갔던 길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찾아서, 몇 해를 두고 항상 다녔으니까 그 길을 잘 알죠, 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두막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사상을 차려 놓고 정말 그 노파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현생의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 전생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현생의 어머니와 함께 두 어머니를 섬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사람답게.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그 밑으로도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은 집에 가서 태어났겠어요. 또 자기가 과거의 어머니로서 그 자식의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부모가 주신 이 모습을 아주 은혜롭게 항상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오시면 제사 잘 지내느냐는 말도 하고 천도재는 지냈느냐, 얽히고설킨 거를 다 편안하게 활연하시게 했느냐 얘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도님은 한쪽은 기독교를 믿고 한쪽은 불교를 믿는데 불교 믿는 식구는 한 사람이고 기독교 믿는 식구는 여러 사람이 되니까 우겨서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낸대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어디다가 몸을 의지하고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한 거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도님은 다른 종교를 믿는 형제들이 추도식을 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영혼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 않고 여기 다니는 막내 아드님한테 따라오셨더라고요, 거길 안 가고. 참 이거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형제들이 못 지내는 형편이면 지낼 수 있는 자식이 소박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내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골바가지들을 보고 정례를 올리신 겁니다. 내가 법문 중에 몇 번 얘기를 했죠? 공동묘지엘 가니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늙었더라고. 이런 걸 보면 아이도 조상이고 또 조상도 자기 자손이에요. 이런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왜 해골을 가지고 가르치셨을까요? 해골과 조상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례를 올리고 "이것이 전에 내 부모였느니라. 내 형제였느니라. 내 친구였느니라. 내 할머니였느니라. 내 할아버지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죽었으면 누구든 자기 조상 아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파도가 쳐서 거품 같은 물방울이 수만 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라앉으면 다 바닷물인 것입니다. 이 경우 물방울은 육신을 가진 중생이고 바다는 근본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물방울 하나가 가라앉는 것밖에 안 되는데, 누구라 가릴 것 없이 몸을 벗었다 하면 바다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땐 모두가 다 내 조상이다 이 소리죠. 일단 바닷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바닷물의 어느 것이 내 조상인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닷물 전체가 다 내 조상인 거죠.

생명의 근본은 그렇게 크고 넓으면서 하나예요. 그 생명의 바다에 잔잔한 물로 그대로 한자리하고 있다가 그냥 방편으로 작게도 크게도 나투면서 한 물방울이 되어 나와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니라. 바다를 봐라. 수만 개의 물방울이 흩어졌다가 바람이 자니 다시 가라앉아 지금은 그대로 다 바다이니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만 믿어라

☞ 21면에서 계속

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치로 그 해골바가지와 뼈다귀들도 그렇게 한번 일어났다가 가라앉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 조상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내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올린다는 게 없는 법이죠. 모든 것은 본래 한자리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밖으로 가질 않고 안으로 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곧 조상에게 하는 예배이면서 부처님께 하는 예배인 것이고, 또 동시에 나에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일체가 더불어서 함께 하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는 자기한테 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조상님에게 했다고 해도 맞지 않으며, 부처님한테 했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예컨대 돈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물건을 사 오지만 거기엔 오고 감이 없어요. 단지 그냥 사 올 뿐이지 ‘돈을 저 사람에게 줬다. 그래서 물건을 받았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연일 뿐이지. 그와 같이 법이란 오고 감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도 내 마음의 떡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겁니다. 그 마음의 떡 하나에 인등이 있고, 향이 있고, 청수가 있는데 일일이 떡을 들고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려니 그게 얼마나 구차해요? 그건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을 모독하는 거고요. 그건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모시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나와 조상이, 나와 부처가 하나인 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하되 늘 자기와 더불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질 않고 거죽으로만 조상님을 공양한다면 안 되죠. 그런다면 조상님의 중생적 모습만을 보고, 조상님의 참 근본인 진실한 부처의 모습, 모습 아닌 그 모습은 못 보는 셈이지요. 그런 사람은 참된 수행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뜻으로 본다면 조상과 부처가 함께 한 그 근본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몸이 춥지도 않은 그 법 안에는 법 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 자리엔 언제나 충만하게 물도 있고 향도 있고 등도 있고, 일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참뜻으로부터 잘 정돈된다면 조상님들도 다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진짜 중이 한 사람만 나온다면 자손의 십 대뿐만 아니라 이십 대까지도 그 복덕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질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힘이 들 때마다 큰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봐 왔었는데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주인공을 찾고 있지만 금세 다시 저 자신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곤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과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까지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 압박감과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면서 잠시 쉬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시험과 경쟁은 한 번은 넘어야 할 관문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져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몇 번이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서인지 하던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경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워지기까지 하는데, 풍전등화처럼 생각에 휘둘리는 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데요,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어요?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떼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自佛)만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돼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불이 있겠어요.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요.

또 딴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요? 본래 자불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요. 저 봐요.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죠?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요.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 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불 주인공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거길 찍어서 놓는다든가 이런 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요. 모르는 거는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바깥에서 하면 도저히 올팡갈팡이 돼서 잘못돼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방록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 된다 그러기에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정에 도달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서 내 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방록에서 말을 얼른 얼른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을 하고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드니 못 해요, 재산이 없어지니 못 해요, 글쎄.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거를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텐 연방 해 주고요.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붙여 놓고 벽에도 붙여 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 놓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래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디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붙여 놓고 한번 해 본다면…. 그건 진저리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불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여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아무리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경계에 부딪치면 욱하고 올라와요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어떤 경계에 탁 부딪치면 욱하고 화가 먼저 치밀고 올라옵니다. 이런 경계도 공부거리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기 이전에
> 그걸 봤으면 보는 대로 그냥 주워 넣어요.
> 그냥 보는 대로 주워 넣으라고요.
> 그리고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한바다가 되죠.

답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옆눈을 팔지 마라, 옆을 보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도 한때는 그렇게 지내 봤습니다마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옆에서 잘못하든 잘하든 그거를 개의치 마라’ 이겁니다. 왜냐. 옆에서 잘못하는 거를 보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전자에 몰랐을 때 바로 내 모습이었다.’ 하고 안에다 놓아 버리세요.

이것이 그냥 억지소리가 아닙니다. 수없이 바뀌어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못났을 때 그 모습, 잘났을 때 그 모습, 못했을 때 그 모습, 형편없는 그 모습이 모두 자기가 거쳐 올라온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모든 걸 놓고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 아니야?’ 한다면 그쪽도 바꿔집니다.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게 바꿔져야지, 말로 육신으로 해서는 외려 더 업을 짓게 되고 그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놓고 가야만이 다 버려서 다 얻는 거죠.

만약에 이거 잘못된 것 보이고 저거 잘못된 것 보이고 이러다가는 언제 그 길을 갑니까! 언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기 이전에, 그걸 봤으면 보는 대로 그냥 주워 넣어요. 그냥 보는 대로 주워 넣으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그냥 한바다가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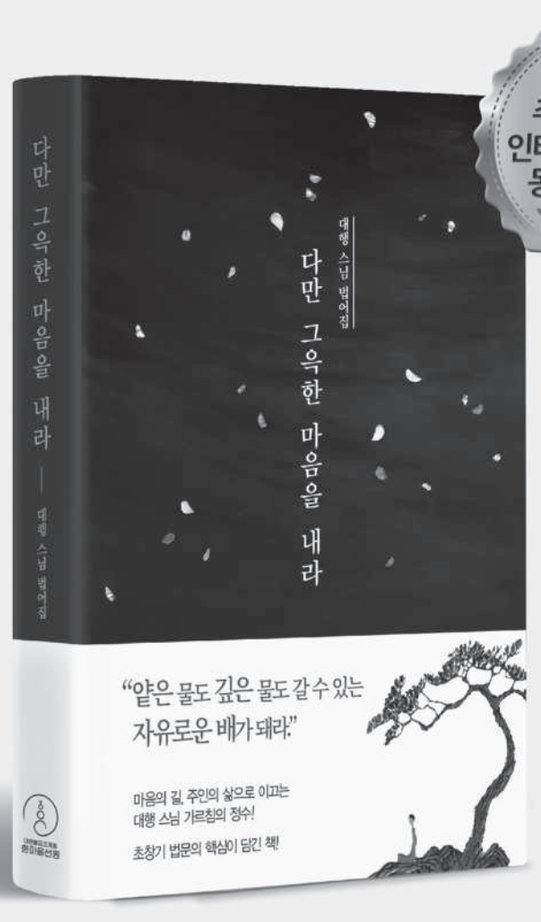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질문 요즘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불치병이었던 많은 질병들이 치료 가능해졌고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전자 조작도 가능해져서 그로 인한 질병 치료 및 생명체 복제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앞으로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그 모습은 닮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까지도 닮을 수 있을는지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되었다면 그 이전의 업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그렇게 복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갖은 각색으로 마음이 찰나찰나 변하고 천차만별로 쓰이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될 테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몇 가지의 조목을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넣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됐을 때, 그 업식보다도요,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몸체를 볼 때에 그,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팀들이 다르단 얘기예요. 팀들이 다르니까 아, 생김생김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지고서 사람 병 치료를 한다 이래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딴 데 있던 그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 변함없이 그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뛸 줄도 모르던 사람이 아주 뜀박질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그 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뛸까요?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조금 생긴다는 얘기죠. 결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지금 말해서 장땡이죠, 뭐. 좋지 않은 거는 또 좋지 않은 대로 세세생생에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언짢은 거 반이 거기 속한다, 이런 뜻이죠.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불 논단

1.5℃ 목표에 맞는 기후행동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
네트워크 사무총장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해
美·中·佛, 정상 회의 개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코로나에도 배출량 지속 증가
경기불황 회복에 석탄 과사용
한국도 마찬 가지 상황 '우려'
탄소 중립 선언에도 역행 중

가장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정책 변화로 대전환 이끌어야
불교계 실질적인 참여도 절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정상들을 초대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미국 정부는 각국 정상들에게도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1.5℃ 이하 유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탄생의 주역이었으나 트럼프의 집권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트럼프 집권 이후 실종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가량 감소했으나 4월 20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리뷰〉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증가했던 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가 6% 증가했던 2010년이었다. 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생산을 연간 6%씩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화석연료 생산량은 연간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보다 하락한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석탄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소비한 탓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도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은 46%로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 유엔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킬 노력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2공항, 가덕도 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파리기후협약이 요구하는 '진전의 원칙'을 위반해 UN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이미 1.2℃를 넘어섰다. 4월 19일 세계기상기구(WMO)는 2020년이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가뭄, 태풍 등 기후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고, 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지난 여름철 기온이 한국보다 높은 39℃를 기록하는 등 기후시스템의 붕괴가 예측되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이고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를 50%로 상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1.5℃ 목표에 맞게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IPCC가 권고한 50%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 뿐인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제주2공항과 가덕도공항 건설을 백지화함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줘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노력을 보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온실감축과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에 달렸다. 그러한 점에서 신도들의 자체 교육시스템을 갖춘 불교 종단은 불자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환의 과정에서 주체로 서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社 說

제8대 포교원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취임식이 4월 22일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교육원장, 호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의 취임이 있었지만 이날 취임식은 다소 독특하게 진행됐다. 줌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조계종 최초 언택트 취임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취임식에 참여한 100여 사찰, 신도 · 포교단체 대표들은 포교현장에서 포교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제8대 포교원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법 포교라는 1차 과제와 탈종교, 저출산 고령화, 모바일과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 등 엄청난 과제가 눈 앞에 있다. 이런 가운데 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신도 모바일 네트워크, 불교 콘텐츠 플랫폼 개발, 고령 신도 디지털 접근성 확대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포교로의 변화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보여줬듯,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찰,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할 의지도 전했다.

"〈불교성전〉에는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광명의 깃발을 들고 걸어간다' 는 전도선언을 전한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취임식에서 인용한 문구다.

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일컬어 지는 사회적 우울에 시달리는 지금,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전법 포교에 나선다면 20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 중흥도 머지 않은 일일 것이다.

제8대 포교원은 제7대 포교원이 진행한 신행혁신을 이어 받고, 새로운 네트워크와 생동감 있는 포교로 나아가야 한다. 생동하는 포교를 위해서는 모바일, 온라인 방식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미뤄선 안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차별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여전히 법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는 3건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먼저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을 초래한 장 모씨의 경악할 만한 발언이다. 방화범 장 씨는 지난해 수진사 산신각에 불을 지르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최근 법정에 선 그는 "방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불 지르라면 또 불을 지르겠다"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자 했지만 안됐다" 등의 발언을 재차 쏟아내 충격을 안겼다. 결국 왜곡된 신앙심으로 인한 증오범죄로 산신각이 소실됐음을 확인한 셈이다.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도 여전하다. 장애인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름을 느끼지 않지만 정작 주변인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생명이 달린 문제다. 한사람의 인간이자 군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사회적 편견의 벽에 부딪혔던 故변희수 하사가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이에 앞서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해 힘써 온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도 같은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차별을 개선하는 첫발은 그것이 차별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알고 또는 모르고 행하는 수많은 차별이 있음을 인지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로 더 이상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성냄 · 근심, 나를 해치는 독소

인간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삶은 불안과 공포, 걱정, 고통이 함께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8%가 신경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성냄과 공포, 걱정과 극한 분노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성공포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많아지면 위주머니의 근육이 이완되어 수축하지 않게 됩니다. 성냄과 근심은 우리 몸에 독소를 흘러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드레날린의 양이 적당할 때는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냄과 공포, 걱정과 극한 분노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아드레날린의 양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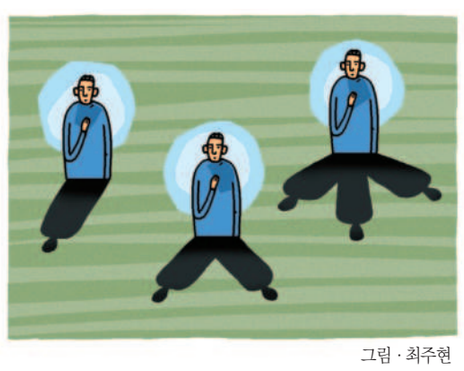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은 건강은 물론,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와 반대로 얼굴표정을 항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남도 불쾌하게 만듭니다. 항상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만 주위에 생기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남에게 불쾌한 파동(波動)을 은연중에 일으키게 되어 인간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분노를 가지고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백 번, 천 번을 기도 한 들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거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선, 마음을 비우는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걱정을 일으키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그릇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기에 버릴 수 있습니다.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다보면 자신의 나쁜 업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독소를 만들어 내 몸을 공격하는 걱정과 근심, 불안, 공포심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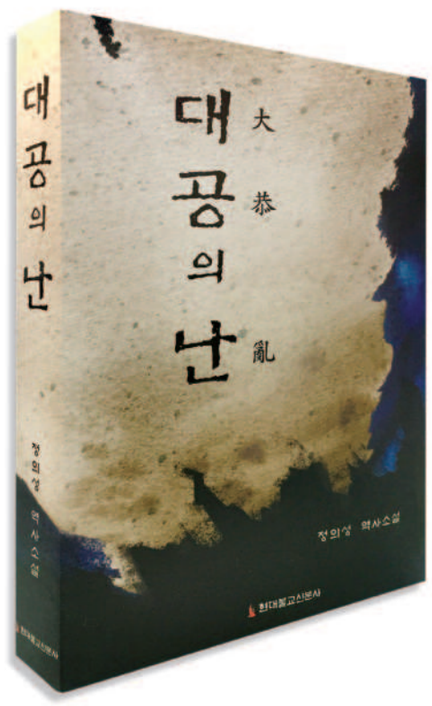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 02)732-1520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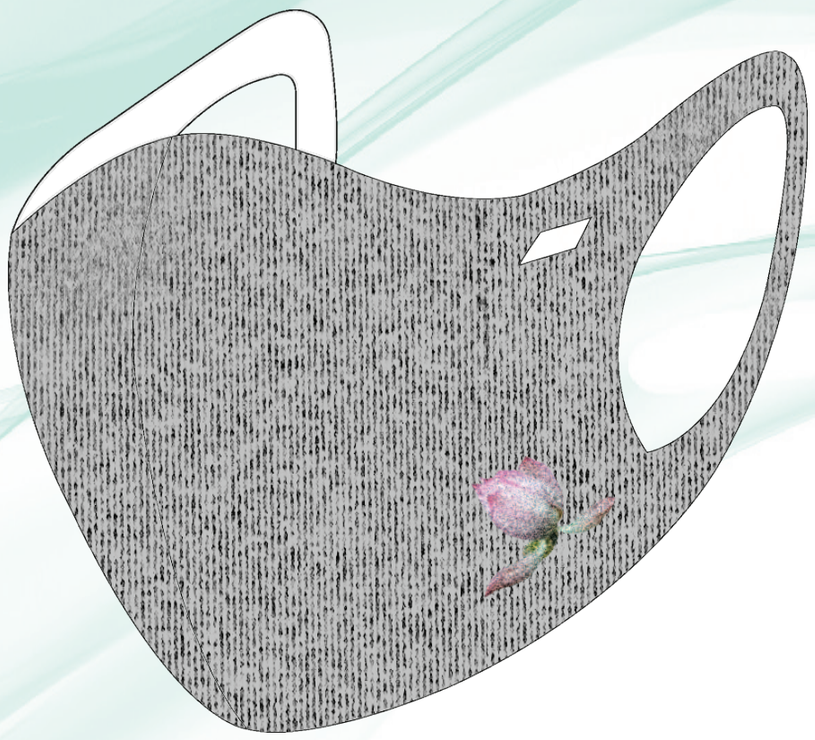
봉축행사는 "기능성 마스크"로 준비하세요.
보시용으로도 좋습니다.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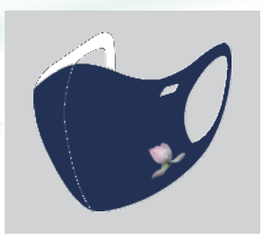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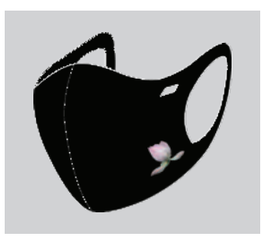
ANTI-BACTERIAL·DEODORIZATION·항균&소취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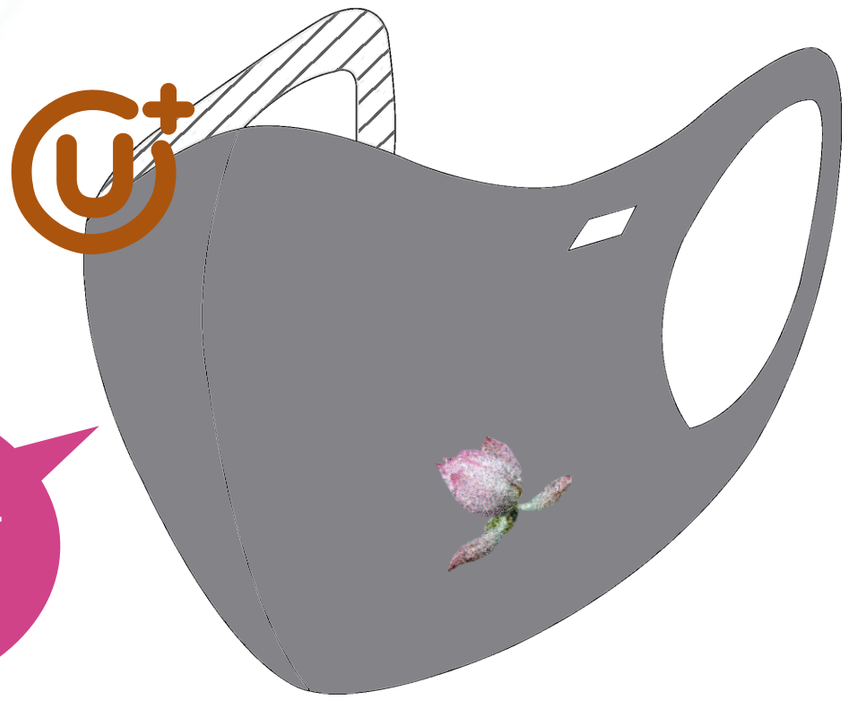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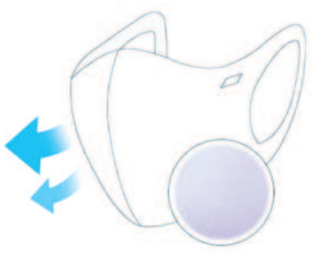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 가능하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